

문화이주에서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와 지역사회의 변화 연구

강대훈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1 연구의 배경 / 2	
1-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II. 2010년대 제주이주의 배경	7
1. 제주이주의 역사	7
2. 2010년대 제주이주의 특이성	21
2-1 2010년대 제주이주의 특이성 / 21	
2-2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및 가치지향 변화 / 24	
III. 문화이주에서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31
1. 2010년대 초반의 문화이주	31
1-1 문화이주의 동기 / 31	
1-2 문화이주의 정의 / 36	
1-3 문화이주민 2인의 사례 / 39	
2. 2010년대 후반의 라이프스타일 이주	46
2-1 2010년대 중반 제주이주의 경향변화 / 46	
2-3 제주식 라이프스타일 이주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 52	
2-2 라이프스타일 이주민 2인의 사례 / 58	

IV. 제주이주와 지역사회의 변화	63
1. 마을과 “로컬”의 차이	64
1-1 마을-공동체 : 공동의 규율과 제재의 가능성 / 64	
1-2 “로컬” : ‘기업가적 개인들’을 위한 로컬 / 69	
2. P 마을 사례 : 이주민과 마을회의 상충하는 입장들	72
2-1 마을회의 이주민 인식: “비즈니스하려고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 73	
2-2 이주민 : 마을 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 불가 / 79	
 VI. 결론 및 시사점	82
1. 결론	82
2. 정책점 시사점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8

표차례

〈표 1〉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17
〈표 2〉 2023년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제주)	19
〈표 3〉 2023년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수 및 비중 상위 5순위	20
〈표 4〉 2009-2018년 기준 제주지역 연령별 전입인구 추이	23



그림차례

〈그림 1〉 연구 추진방법	6
〈그림 2〉 1990년도 제주로의 인구전출입 현황	13
〈그림 3〉 2023년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수 및 비중	19
〈그림 4〉 1990~2025년 사이 ‘제주 이주’가 포함된 뉴스 빅데이터 검색 결과	21
〈그림 5〉 2009~2018년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 추이	22
〈그림 6〉 ‘문화이주’ 용어의 의미망 분석	36
〈그림 7〉 1995년(위) 및 2018년(아래) 기준 구좌읍 평대리, 세화리, 하도리의 마을 경계	67
〈그림 8〉 1995년(위) 및 2018년(아래) 기준 P 마을의 공간 변화	77



1. 서론

- 이주민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외래인 이주의 역사와 그 영향이 비도서 지역보다 더 선명하게 관찰됨. 제주 역사에서 이주민과의 조우는 한편으로 원치 않는 지배와 침략, 숙박과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습속과 문화, 문명이 유입되어 제주의 물질, 문화적, 사회적 기반이 비옥해지는 효과를 낳았음. 이주민과의 공존은 오래 전부터 섬 주민들의 변하지 않는 과제였다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의 주요대상은 2010년대 이후의 제주이주로, 제주이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학, 민속학, 사회학 등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동시에 이 연구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전의 각 시기를 특징짓는 중요한 이주 경향을 짧게 소개하고, 2010년대 제주이주가 이전 시대와 어떤 연속성과 차별성을 갖는가를 살펴보려 함.
- 출륙금지령, 일제의 지배, 4.3과 한국전쟁 등 고통스런 역사적 경험들로 인해 제주사회의 외지인에 대한 관점은,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원치 않는 변화나 부정적 효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임. 그러나 제주와 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타자화된 경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농경문화의 유입자로서의 이주민, 몽골지배 이후 목축문화의 도입, 조선시대 입도조의 정착과 유학의 발전 등 외래인들의 정착이 제주사회에 남긴 또다른 영향도 염연함. 이주민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주민”, 제주에 뿌리내리고, 제주인들과 교류하며 나선형적 시너지를 통해 제주를 발전시킨 이주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이주민”이라는 관점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도 필요함.
- 문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보다, 긴장이나 갈등, 혼란 등의 부정적 변화들이 일차적으로 관찰됨. 본 연구는 제주이주에 대한 공시적, 사회과학적 연구이므로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와 경향변화, 그리고 한 해안마을에서 발생한 이주민과 마을회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관찰되는 혼돈과 갈등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포착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인구학적 어울림이 제주 문화에 가져온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연구하는 일이 중요한 후속의 과제임.

II. 2010년대 제주이주의 배경

- 2010년대 제주이주는 기존 이주들과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세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음. 1. 20~40대 청년층이 이주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 2. 경제적 동기(생계유지)가 아니라 삶과 휴식, 더 나은 삶의 질을 주요 이주동기로 함, 3. 정치적 망명이나 피난, 기타 자연재해 등의 이유가 아닌,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이주.
- 2010년대 제주가 많은 한국인들, 특히 청년세대에 잠재적 이주처로서 부상했던 이유는, 제주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자연, 독특한 문화도 큰 역할을 했지만,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그와 맞물린 개인들의 가치 지향 변화 때문에 육지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임.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시차 효과’처럼, 한국의 고도성장과 도시화의 피로가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가끔씩 왔다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대안적 삶의 장소로서 부각되기 시작했음.
- 그에 발맞추어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귀농귀촌이주가 서서히 증가했음. 1970~80년대, 군부독재 하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반감과 좌절로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 집단이 존재했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주요한 이주흐름은 이촌향도였음.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귀농귀촌 이주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됨.
- 2010년대 제주이주는 이러한 이도향촌 이주의 가장 괄목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2010년대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청년 귀촌이주의 경향을 강하게 지님. 어떤 의미에서 제주이주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변화한 고용 시장과 사회적 환경 하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목도하고 있는, 8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의 곤경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III. 문화이주에서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 본 연구는 2010년대 제주이주의 경향이 초반의 ‘문화이주’에서 후반의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변모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그 변화양상을 검토하고자 함. ‘문화이주’라는 용어가 그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제주이주의 특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잠정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함 : 경쟁·성과 중심의 도시생활과 신자유주의적 노동 조건 하에서 경험한 무의미에 대한 반발로서, 넓은 의미의 ‘문화’활동을 통해 대안적 삶을 모색하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이주.
- 이 정의는 기존의 ‘문화이주’ 연구나 기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나, 정확하게 규정된 적이 없는 ‘의미’의 문제를 2010년대 제주이주의 중심에 놓고자 함. 2010년대 후반의 라이프스타일 이주도, 사실은 이러한 ‘문화이주’의 한 양상이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존적 고민으로서 ‘의미 추구’를 ‘문화이주’ 개념에 포함시키고 나서 ‘문화’의 뜻을 고찰하면, 여기서의 ‘문화’는 노동과 도시살이의 ‘무의미’에 맞서, 보람, 재미, 행복 등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하는 폭넓은 행위를 지칭함. 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의 창작활동이 이주민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음. 2010년대 제주로 건너왔던 청년 이주민들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했건 아니건 간에, 무언가를 만들고, 타인들과 교류하고,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임들을 조직하는 데 매우 큰 관심이 있었음. ‘문화’의 힘으로 냉혹한 ‘경제’적 현실, 즉 경쟁과 성과 중심의 비인간적 도시생활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고자 했던 시도가 문화이주였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대 후반이 되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문화’를 통해 행복할 수 있고, 대안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 청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산과 문화자본, 사회적 지위를 갖춘 이들이 제주로 내려오기 시작함. 이 2010년대 후반의 이주민들은 잠정적으로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 이주민’으로 명명할 수 있음.

- ‘문화이주’에서 ‘라이프스타일 이주’로의 경향변화는 현지조사와 참여관찰, 언론기사 분석, 선행연구 분석 등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재구성한 것인데, 그 경향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음. 1) 2010년대 중반 무렵, 주택임대료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2010년대 초반 정착한 ‘문화이주민’의 상당수가 육지로 되돌아가는 역이주의 발생. 2)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 ‘문화이주’ 담론의 소멸. 3) 월정, 대평 등 몇몇 마을에서 관찰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4) 2010년대 초반과 후반 정착한 이주민 특성의 변화
- 2010년대 후반, 제주식 라이프스타일 이주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적 혁신’ 원리와의 융합임. DAUM의 제주이전 후 몇몇 준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제주에 스타트업 문화가 확산되고, 제주이주민의 새로운 모델로서 혁신적 기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상이 제시되고 있음. 문화이주 담론이 2010년대 초반의 제주이주를 규정했다면,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 또는 혁신 담론이 2010년대 후반의 제주이주를 규정하고 있음..
- 혁신과 도시재생은 긍정적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이주민의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본질적으로 스타트업 창업가, 즉 기업가임.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기업가성(entrepreneurality)의 원리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본질이라면 (Laval & Dardot 2009), 개인의 삶의 자세나 기업 운영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기업’ 원리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어 온 공동체 (가령 “마을-기업”) 까지도 기업가적 원리에 따라 재편하려는 이 원리는, 눈에 잘 띄지 않으나 강력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서 강력한 양가성을 지님. .

IV. 제주이주와 지역사회의 변화

- 전통적 제주 마을은 경제, 종교, 친족, 지연공동체로서 제주인들은 여러 겹으로 얹히고 설킨 관계들 속에서 공동의 삶을 영위해 왔음. 그러나 제주식 ‘라이프스타일 이주’ 흐름 속에서 개념화된 “로컬”은, 본질상 ‘기업가적 개인들’을 위한 공간임. 이는 제주 농촌 마을들이 최근까지 유지해왔던 마을

공동체성 및 공동체적 가치와 상충됨.

-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주 마을 연구경향과 달리, ‘공동 규율의 존재’와 ‘그 규율을 어긴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제주 마을공동체를 정의하고자 함. 제주의 마을들은 성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생업과 인간관계, 기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여겨지는 관습적 규율들이 존재했고, 그 규율을 어긴 개인들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공동체였는데, 이 제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웬당”이라 불리는 제주의 광범위한 친족 네트워크였음.
- 1970년대 이후 국가 권력과 행정력이 제주의 마을과 그 내부 자치조직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공식적, 성문화된 권력과 웬당의 관습적, 비공식적 영향이 상호 충돌하고 경합하는 사례가 많아짐. 2016년 완공된 강정해군기지과 같이, 국가가 그 공권력을 강하게 밀어붙여 마을공동체를 갈라놓은 극소수의 사례 외에는, 여전히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주 내의 전통적 사회조직과 친족 네트워크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라 판단됨.
- 본 연구는 제주 마을공동체를 잠정적으로 “공동의 생업, 거주지, 종교적 대상을 가지며, 내부의 친족조직(웬당)과 당신앙이 개인들의 삶의 핵심적 규율과 제재 원리로 기능했던 집단”으로 이해하고자 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규율을 위반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인데, 이 관점에서 보면, 2010년대 제주이주민의 유입과 마을사회의 변화, 더 나아가 제주 전역에서 관찰되는 제주인-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긴장의 핵심에는, “마을 차원에서 제재가 불가능한 이방인”이라는 문제가 있음.
-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 행정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이장이나 통장과의 면담, 인사, 서명을 통한 직접 대면식 전입신고제가 폐지되면서, 마을회나 마을이장과의 협의 없이 마을로의 이주가 가능해짐. 마을회와 일면식도 없고, 마을활동에 소극적이며, 마을 발전기금이나 운영기금 납부에도 소극적인 개인들, 즉, 마을을 공동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개인들이 같은 거주공간에 살게 되었음.
- 그러나 이주민-마을민 사이의 긴장이 단순히 비대면 전입신고의 일반화 때

문만은 아니며, 더 근원적으로는 많은 이주민들의 네트워크와 생활환경이 특정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의 경계를 가로질러 전개되기 때문임. 이 연구는 이주민들이 인식하는 “로컬”과 마을민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차이를 분석하고, “로컬”이 그 본질상 확장된 도시성의 공간이라고 주장함.

- 한편 이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살이에 지쳐 자기다운 삶과 휴식을 위해 이주한 마을에서, 타인과의 얽힘과 공동체 참여가 거북한 간섭이자 속박으로 느껴질 수 있음. 또한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 자치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이 여전히 제주 출신 토박이인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마을 내 의사결정 구조에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가 매우 어려움.
- 본 연구는 제주 서귀포시 근처의 한 해안마을 P 사례를 통해, ‘기업가적 개인들’로서 개인적 자아실현 및 사적 권리의 온전한 향유를 원하는 제주 이주민들이, 어떻게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과 엮일린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함. 이 사례가 제주의 모든 마을을 대표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제주의 여러 마을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주민-마을민 간의 긴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VI. 결론 및 시사점

- 이 연구는 2010년대 제주이주의 경향이 ‘문화이주’에서 제주형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변모했음을 보이고, DAUM의 제주이전 이후 확산되고 있는 스타트업 문화와 기업가적 혁신 담론을 통해, 2010년대 후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기업가적 개인들이 이주민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함. 2025년 10월, 제주도의의회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 육성하겠다는 조례입법을 예고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규명한 2010년대 후반의 이주 경향이 제주 정부의 정책으로 편입된 이상, 본문에서 다룬 주제들은 향후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대 제주이주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 일차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

라가 형성되어 제주가 청년들을 포함해 외지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거주지로 탈바꿈하였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주의 몇몇 마을을 중심으로 급속한 이주민 유입, 부동산 가격 상승, 관광화 및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전통적인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관광공간이 중첩되고, 개발 이익의 수혜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이원화되는 등, 급속한 개발이 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린 측면도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공장이나 대기업이 적은 제주에서, 이주민들은 정착 후 거의 대부분이 급여생활자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했음. 그러다 2010년대 후반에는 기업가적 혁신역량을 갖춘 ‘로컬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이주민 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함. 기업가적 창조성과 네트워킹 능력을 동시에 지닌 뛰어난 기업가적 이주민들의 성공사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탁월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등장 이후로, 기업가적 주체성 또는 라이프스타일이 개인들의 새로운 생활모델이 되었음. 그 라이프스타일은 역설적으로, 2010년대 초반 문화이주민들이 서울에서 도망치고 싶어했던 그 치열함 속으로 이주민들을 다시 데려가고 있음.
-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와 그 현재적 지점을 살펴보려 한 이 연구가, 향후 제주도의 이주민 및 지역발전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함.
- 첫째, 제주시나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청년이주민, 은퇴이주민 등 모든 종류의 이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이주민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2014년 이래 제주도청에서도 정착주민 지원조례 제정, 지원사업 실시, 이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해당 사업들이 대개 지역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지역단체나 지도자의 이니셔티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성과가 일관되게 도출되지 못했다고 보임. 따라서 개별 마을이나 지역을 넘어서서,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10만이 넘는 이주민의 지원, 관리, 요구와 쟁점의 수렴 등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제안함.
- 둘째, 2025년 10월, 제주도의회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육성 조례안’

입법을 예고하였음. 제주에 존재하는 풍부한 유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사업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제주의 정책적, 경제적,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임.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와 같은 혁신적 기업가의 활동은 항상 상품화와 상품 수익을 매개로 이루어짐. 동시에 기존에 상품교환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대상들을 상품교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안과 병행하여, 제주도민들의 기본적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자산이나 부동산의 경우, 즉각적 거래나 상품화를 어렵게 하는 법안들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상품 영역에 존재하지 않았던 항목들이 시장경제의 상품교환 대상으로 편입되는 사례는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인데, 이를 지나치게 규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삶은 보장되는 한도에서 그 제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공은 기업가 개인의 탁월성에도 빚지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았지만 제주인들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공동의 자연 및 마을경관에 빚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후자를 보호해야 전자의 활동이 가능해질 것임. 무분별한 토목식 개발이 아니라, 제주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에 기반한 혁신적 사업모델들은 어쩌면 제주의 생태성과 문화를 온전히 보전하는 데서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임.

I. 서론

이주민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외래인 이주의 역사와 그 영향이 비도서 지역보다 더 선명하게 관찰된다. 제주 역사에서 이주민과의 조우는 한편으로 원치 않는 지배와 침략, 속박과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습속과 문화, 문명이 유입되어 제주의 물적, 문화적, 사회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비옥해지는 효과를 낳았다. 이주민과의 공존은 오래 전부터 섬 주민들의 변하지 않는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대상은 2010년대 이후의 제주이주다. 제주이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학, 민속학, 사회학 등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본론에서는 2010년 이전의 각 시기를 특징짓는 중요한 이주 경향을 짧게 소개하고, 2010년대 제주이주의 특이성을 고찰하려 한다. 즉, 역사기록 이전 시대, 몽골지배기, 조선시대, 한국전쟁기, 산업화시기, 다문화시기를 거쳐, 소위 제주이주열풍 시기의 이주가 이전 시대와 어떤 연속성과 차별성을 갖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동시에, 2010년대의 제주이주가 현재적 시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검토하려 한다.

출륙금지령, 일제의 지배, 4.3과 한국전쟁 등 고통스런 역사적 경험들로 인해 제주인들의 외지인에 대한 관점은, 외부인의 유입으로 인한 원치 않는 변화나 부정적 효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농경문화의 전래자로서 이주민, 몽골지배 이후 목축문화의 도입, 조선시대 입도조의 정착과 유학의 발전 등 외래인들의 정착이 제주사회에 남긴 또다른 영향도 염연하다.

정책적으로 보면,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제주도정은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도민인구 증대, 정착인사 및 이주민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제주사를 이주민의 역사로 볼 수도 있다면(정은희 2017), 이주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주민”, 제주에 뿌리내리고, 제주인들과 교류하며 나선행적 시너지를 통해 제주를 발전시킨 이주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이주민”이라는 관점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본다.

문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보다 긴장이나 갈등, 혼란 등의 부정적 변화들이 일차적으로 관찰된다는 사실이다. 섬 주민들과의 어울림, 제주에의 뿌리내림을 통해 제주의 사회, 문화, 경제적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비옥하게 만드는 이주민의 역할은, 장기적 관점의 역사연구에서 더 잘 조망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제주이주에 대한 공시적, 사회과학적 연구이므로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와 경향변화, 그리고 한 해안마을에서 발생한 이주민과 마을회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앞으로의 과제는 단기적 관점에서 관찰되는 혼돈과 갈등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포착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인구학적 어울림이 제주 문화에 가져온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연구하는 일일 것이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온 정착주민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외국인이민자들의 정착으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는 제주에서, 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을 조화시키는 과제는 중요한 학계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2010년부터 약 10년간 제주 인구는 약 10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한때 "제주이주열풍"이라는 표현이 유행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¹⁾,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제주로 이주한 인구의 60% 이상이 20대~40대이며,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주요 이주동기는 경쟁과 성과, 물질 중심의 도시살이에서 벗어나, 제주의 자연 속에서 더 느끼고, 여유롭고, 더 연대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다.²⁾

한국의 귀농귀촌 및 이주민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0년대 말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경향은 대략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정책 연구로서 지방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사가 대거 반영된 정착주민 관련 연구, 둘째는 지리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한국의 농촌-도시 관계와 농촌성 변화에 대한 연구 (엄은희 2012, 진양명숙 외 2014, 박경환 2017, 박경

1)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성/연령(5세)별 1인 이동건수, 제주특별자치도, 2010-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T_1B26001_A01%26orgId%3D101%26

2) 이화진 외,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16. p.83-85.

김동현,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 제주학회 2017년 45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2017: 117.

환·윤희주 2018), 셋째는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된 청년 귀촌이주(김반석 2019, 이경은 2019, 김이선 2022, 임하결 2022, 홍남희 2023) 연구이다.

제주이주 연구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 연구로는 제주이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유형(김민영·최현 2015), 제주도의 이주민 지원정책(김미량·김민영 2017), 이주민의 정착 후 적응 및 만족도(김인성 외 2017)를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농촌성 연구에서는 서귀포 촌락지역을 대상으로 이주민과 지역민의 사회적 네트워크 차이, 이주민에 의한 마을 관광화를 다룬 연구 (부혜진 2015), 이주민 정착 후 제주 지역사회의 변화 및 몇몇 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룬 연구(염미경 2019), 한국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제주 개발정책으로 제주 읍면지역에서 공동목장이 소멸되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며, 주민들 간 불평등이 심화됨을 밝힌 연구(진종현 외 2019)가 있다. 끝으로 청년귀촌이주로서 제주이주를 다룬 연구들은, 제주이주를 경쟁과 성과 중심의 도시살이에서 벗어나 제주에서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한다(이화진 외 2016, 김동현 2017, Jordan 2019).

제주이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문헌과 통계자료에 의지하는데,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론에 기반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제주서 전개된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의 영향력을 고려해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전개된 제주이주의 특이성을 고찰하고, 문화이주에서 라이프스타일 이주로의 경향변화를 분석한 다음, 그 10여년간의 제주이주 흐름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제주이주는 2010년대 한국에서 전개된 이도향촌 이주의 대표적 사례로서, 정치적 망명이나 생계가 목적이 아닌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가치지향적, 자발적 이주라는 측면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개념화되기 시작한 ‘라이프스타일 이주’(O’reilly & Benson 2009a, 2009b)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제주이주와 2010년대 제주이주의 차별성을 밝히고,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다음, 그 지속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1) 기존의 언론 및 연구자료에 대한 문헌분석, 2)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2010년대 제주이주에서 포착된 두 가지 경향을 문화이주와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규정하고, 제주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 두 이주의 특징들을 구별하고자 한다. 2010년대 초에 시작되어 2010년대 후반에는 그 동력이 대거 상실된 “제주이주열풍”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불과 10여년의 짧은 현상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10년대 제주이주가 제주 사회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끔 비가역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며, 그 영향이 지금도 쫓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비가역적 변화의 예를 몇 가지만 들자면, 가시적 차원에서는 제주 농촌과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몇몇 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 마을 내 상업공간과 생활공간, 농업공간의 혼재와 중첩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문화와 관습의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들은 제주인들의 토지인식, 경제관념, 당신앙, 친족 관계 등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후자의 변화는 조금 더 긴 호흡의 연구 조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제주 이주의 전개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이념 사이의 연관성, 특히 스타트업과 창업, 로컬 크리에이터의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기업가적 혁신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론(1부)과 결론(5부)을 제외하고 총 3부로 구성되며, 각 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부에서는 제주이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2010년대 제주이주가 이전의 이주들과 어떤 차별점과 연속성을 갖는지, 또한 제주이주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어떠한 변동과 맞물려 부상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부에서는 현지조사 및 문헌분석, 이주민 생애사 연구를 통해 2010년대 제주이주의 경향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문화이주’라 명명된 2010년대 초기의 제주이주가, 2010년대 후반에는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 이주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와 맞물려 있는 이주민들의 특성 변화와 제주사회의 변동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2010년대 후반에 제주에서 활발히 퍼져나간 스타트업 및 창업 운동, 로컬 혁신 및 라이프스타일 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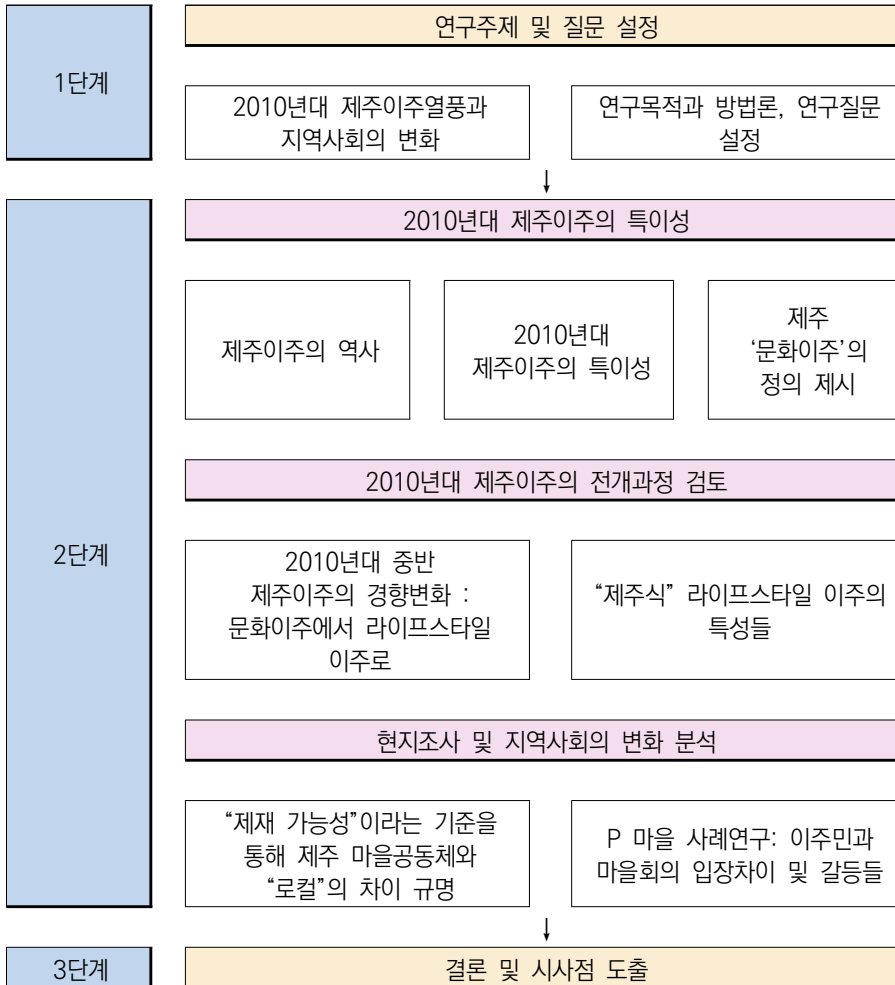
4부에서는 “로컬”로 재규정된 지역사회 안에서 이주민과 제주민의 상호작용과 갈등, 가치관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경향과 달리, 본 연구는 제주의 마을공동체를 ‘공동의 규율’과 ‘그 규율을 어긴 개인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통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제재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제주의 친족관계(웬당)라고 생각된다. 2010년대 이후, 제주 읍면지역의 마을들로 유입된 이주민들은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을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마을활동에 매우 소극적인, 동시에 일체의 “제재

가 불가능한 이방인”들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도시살이에 지쳐 느리고, 자기다운 삶을 위해 제주 읍면 지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이미 직장과의 관계에 지쳐 들어온 제주에서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관계에 참여하는 일이 거북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주민과 정착 주민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를 모색해 보려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질적 연구로서, 문헌조사와 참여관찰에 기반한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자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주 성산읍, 대정읍에 체류하며 총 3개 마을에서 50명이 넘는 이주민들을 참여관찰했다. 또한 2025년 9월에 기존 조사지였던 제주 남서부 해안마을인 S를 다시 방문하여, 4년전에 면담한 이주민들을 다시 만나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 추진방법



II. 2010년대 제주이주의 배경

1. 제주이주의 역사

2010년대 제주이주의 특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2010년 이전의 각 시기를 특징짓는 중요한 이주 경향을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즉, 역사기록 이전 시대, 몽골지배기, 조선시대, 한국전쟁기, 산업화시기, 다문화시기를 거쳐, 2010년대 제주이주가 이전 시대와 어떤 연속성과 차별성을 갖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소위 ‘제주이주열풍’이 수그러든 2025년 현재, 2010년대의 제주이주가 그 이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려 한다.

■ 역사기록 이전의 제주이주

제주의 삼성신화, 그리고 당신화와 일반신화 속에는 섬 바깥에서 온 외래인의 정착 또는 좌정이라는 테마가 여럿 나타난다. 이 신화들에서 외래인은 대개 여성이며, 농경문화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재현된다. 여기서는 제주의 중요한 본향당인 송당본향당과 토산당본풀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의 당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송당본향당은 본풀이의 규모나 당의 공식적 위상 면에서 제주의 당 중 으뜸이며, 반면 토산당은 공식적 위상보다는 제주 민간에서 칠성(뱀)이 가졌던 실질적 영향력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당이기 때문이다.³⁾

먼저 송당본풀이는 한라산에서 솟아난 토착신이자 수렵-목축신인 소로소천국과, 서울 강남 천자국(남산 송악산)에서 태어나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제주도에 입도한 외래신이자 산육-농경의 신인 백주또(금백주)의 혼인을 다룬다. 그 주요 신화소는 다음과 같다(문무병 1993: 58-59)

3) 연구자는 이 사실을 2016년, 2019년 여름, 제주에서 현지조사를 할 때 제주 당신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강정식 선생과의 대화에서 알게 되었다.

(1)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태어난 금백주가 알손당 ‘고부니모를’에서 솟아난 소로소천국과 결혼하여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낳고 산다.(토착신과 외래신의 결합, 마을의 형성과 번성)

(2)옷, 밥, 젖을 달라 조르는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 남편과 ‘오봉이굴왓’을 경작하여 농사를 짓자고 약속했는데(농경 생활의 시작), 시주를 받으러 마을로 가던 동개남 상좌승이 소로소천국에게 점심밥을 달라고 하므로 주었더니 모두 먹고 달아나 버린다.(배고픔의 발생)

(3)시장기가 난 소로소천국은 밭을 갈던 소를 때려 죽여 구어 먹고 심지어는 남의 소까지 잡아먹고 겨우 배고픔을 달래며 쟁기로만 밭을 갈아 나간다.(배고픔의 해결-육식 식성)

(4)화가 난 금백주는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을 분산하자고 고함을 친다.(이혼-곰가름)

(5)부인과 가족을 떠나 소로소천국은 고부니모를로 내려가서 강진여의 딸을 첩으로 얻고 수렵 생활을 한다.(토착신과 재혼-마을의 분리)

(6)일곱째 아들이 자라서 일곱살이 되니 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팍을 치고 하니 불효하다고 하여 무쇠설갑(鐵函)에 담아 동해 바다에 띄워 버린다.(아들의 불효-추방)

(7)석함은 동해 바다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려 용왕의 셋째딸과 혼인하였는데 너무 식성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용궁에서 쫓겨나게 된다.(혼인→식성 과다→추방)

(8)강남국에 가서 세번을 막고 도원수가 되어 제주도에 돌아온다.(난리 평정-귀향)

(9)아버지에게 절을 하려 하니 아버지는 달아나 당신이 되고 어머니 금백주는 살 곳을 찾아가 산 설립, 물 설립하고 인간 백성들에게 수명장수, 오곡풍성, 육축번성, 농사설비 시켜 주라고 한다.(부자상봉-새 마을 형성-당신의 기능 획득)

(10)자식들은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마을 단골들에게 낳는 날 생산, 죽는 날 물고 받는 당신이 되었다.(마을의 토주관-당신으로 좌정)

소로소천국과 백쫓또는 식성의 차이로 이혼하고, 불경한 아들을 추방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농사와 목축이 번성하고 백성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풍요와 번영을 제주 섬에 가져다 주게 된다. 한편, 비교적 최근까지도 제주 민간에서 두려움과 신앙의 대상이었던 뱀신을 당신으로 하는 토산 여드렛당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주 고을에 부임하는 목사는 백일을 채우지 못하고 번번히 파직되었다. 양목사는 다른 목사와 달리 백일을 채우겠다며 나주 고을 목사로 부임하였다. 금성산 앞을 지나면서 말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말이 밭을 절었다. 이유를 알려고 양목사가 금성산 위로 올라가 보니

선녀같은 아기씨가 있다가 뱀으로 변신한다. 포수를 시켜 총질을 하니 뱀은 바둑돌로 변신하여 서울 종로로 옮겨갔다. 진상갔던 강씨·오씨·한씨 형방이 이 바둑돌을 가지고 성산을 온 평리로 들어오려 했다. 온평리 당신인 맹호부인이 뱀신 아기씨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자 토산으로 향했다. 하천이 개로육서또[下川堂神]가 아기씨가 예쁘다며 팔목을 잡으니 아기씨는 더럽다며 장도칼을 꺼내어 팔목을 깎아두고 토산 메뚜기마루로 좌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서 용왕국에 인사를 가서 개로육서또가 한 사건을 이야기하니, 용왕황제는 그의 말을 들었으면 자식을 얻었을 것이라며 도리어 야단을 쳤다. 아기씨는 돌아와 토산 메뚜기마루에 좌정하여 얼마간 세월이 흘렀다. 어느날 느진덕정하님과 올리 소에 빨래하러 갔다가 왜놈들에게 겁탈당해 죽었다. 얼마 후 아기씨 혼령은 가시리 강씨 집안 외딸아기에게 의탁하자 강씨아기는 정신을 잃어갔다. 곳을 하러가니 강씨아기가 연갑 안에 있는 명주를 풀어 달라고 했다. 명주 틈에 말라 죽은 뱀을 위한 곳을 하고, 소와 닭을 잡고 배를 지어 제주 명산물을 실어 바다로 띄워보내니 강씨아기 병이 나았다.

토산당 본풀이 연구에서 양영자는 나주는 넓은 평야가 있는 곡창지대이며, 제주에는 쌀이 나지 않으므로, 나주 지역에서 외래신이 입도하였다는 것은 쌀 문화와 연관된 부의 신(富神)의 입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양영자 2004: 96). 직접 오곡을 가지고 제주로 오는 백쫓또나 곡창지대인 나주에서 토산으로 건너오는 뱀신처럼, 두 당본풀이에서 외래신은 여신이며 모두 농경문화와 관련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 13-14세기 몽골인의 제주이주

13-14세기 제주도는 몽골의 지배를 받아 많은 몽골인들이 제주에 정착하였다. 이 몽골지배기는 일반적으로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항쟁을 진압한 1273년부터 최영이 목호의 난을 진압한 1374년까지 약 100년간으로 보지만, 원(元)에 뒤이어 등장한 명나라가 운남의 양왕(梁王)의 가속을 비롯한 원의 지배층들을 제주도에 유배시킴으로서 몽골인의 제주이민은 1392년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120여 년간 이어진 몽골인의 유입으로 몽골 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제주도의 언어, 음식, 복식, 인종, 민속, 풍습에 스며들게 된다. (윤용택 2020).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시대 몽골과의 만남은 제주사회에 목축문화의 도입, 중산간 마을의 형성, 조씨, 석씨, 주씨, 장씨 등 원(元)을 본관으로 삼은 성씨의 도입, 법화사 중창 등을 통한 제주 불교에의 영향, 제주 행정구역 개편에 큰 영향을 끼쳤다(김일우 2003). 그 외에도 말고기와 고소리술, 상애떡과 같은 제주 음식문화나, 사라(달), 오라(기능, 기예), 아라(평민, 농민), 허벅(물항아리) 등 수십 개가 넘는 제주 단어들에도 몽골의 영향이 남아 있다. (전영준 2013)

■ 조선시대 유배인과 입도조

다음으로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개국하면서 여말선초 시기부터 조선이 해체될 때까지, 제주에 유배되거나 자발적으로 입도한 양반 사대부 계층의 이주도 제주 사회를 변화시킨 중요한 과정이었다.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16인의 이력을 분석하고, 홍기표는 이들의 입도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유배, 정치적 망명, 은둔 처사, 그리고 공무수행 후 정착 (홍기표 2018: 48). 입도조 분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그들의 양반 신분과 학문적 소양, 중앙과 중국 문화의 경험인데, 이는 나름의 전통관습을 유지해 오던 토착 제주인들에게는 이질적인 집단의 등장이었다. 저자는 “제주의 토호세력과 민간은 초기에는 이들을 향해 경계의 시각으로 접촉했겠지만”, “이들은 단기간 지배층으로서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목민관이 아니었다. 제주에 정착하고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후손이 대를 이어가며 차차 제주 사람이 되어갔다”면서, “이런 상황은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접촉과 수용, 흡수와 통합 등 나선형적인 발전을 이루며 제주문화를 탄생시켜가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무리없는 해석이라 생각된다.(2018: 52)

한편 김태형(2011)은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된 유배인들 - 양반 관료, 왕족, 외척, 종교인, 여성, 환관 등 - 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한 논문에서, 조선조 500여년간 총 261명이 제주로 유배되었음을 밝힌다. 그는 왕족, 외척, 실무직에 있었던 관료 등 조선사회의 상류층 집단이 제주도로 집중적으로 유배되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유배인 정착이 제주사회에 두 가지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한다. 첫 번째는 유학의 전파와 발달이며, 두 번째는 혼인과 정착을 통한 입도조로서의 자리매김이다. (김태형 2011: 61) 이 입도조들은 지역 유지 세력과의 혼인을 통해 새로운 친족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혼인은 유배인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토착세력에게는 명망 있는 양반과의 혼인으로 제주도에서의 지위향상이라는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요약하면 조선시대 입도조들의 제주 정착 역시 오늘날 많은 제주 가문들의 시초가 되었음은 물론, 유교전통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제주에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전쟁 시기 피난민의 이주

20세기 중반, 한국전쟁 이후 상당한 규모의 피난 인구가 제주도로 밀려들었다. 한국전쟁기 제주 피난과 이주, 정착에 대한 김아람의 연구(2017)⁴⁾는 제주도가 한국전쟁 당

시 정부의 피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음을 밝힌다. 당시 제주도는 전쟁기 최후의 피난 지구로 지정되어 최대 규모의 피난이 기획된 곳이었었는데, 가령 1951년에는 약 10만여명의 피난민이 제주로 유입되었다.

당시 제주는 거제도, 군산과 더불어 정부의 사회부 차원에서 구호에 직접 관여한 곳이었다. 제주 피난민들은 여러 방법으로 제주에 정착했는데 기독교인들의 경우 교회공동체의 도움을 받았다. 남한 정부와 미국이 추진한 난민정착사업에서는 제주 4.3 난민과 육지 피난민이 동시에 정착사업의 대상이 되었다. 김아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54년 말~1955년 초 제주도 내 육지 피난민은 1,146세대 4,529명으로 추산되어 전쟁기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중 제주도에서의 정착을 원하는 수는 748세대, 2,976명으로써 전체의 65%가량이었다. 이들의 약 45%가 영농을 원하였고, 약 35%가 기타, 약 21%는 상업을 희망하였다.”(김아람 2017:80). 저자의 결론에 따르면, 제주 4.3과 한국전쟁이 낳은 피난민과 고아, 또 1960년대까지 이어졌던 국가의 정착사업에 의해 제주로 이주한 육지인구는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전후의 이주민 또는 피난민 정착이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은 후속 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 1970-80년대 호남인구의 이주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의 산업화시기 동안, 제주는 큰 인구성장을 경험했다. 이 시기 제주이주를 다룬 염미경의 연구들(2015, 2018)은 당시의 인구성장이 제주도의 개발 및 감귤산업의 발전과 관련 있으며, 제주 이주민 중 호남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보인다. 특히 1967년부터 1978년까지, 호남 지역에서 총 다섯 차례의 큰 가뭄이 발생했고, 따라서 전라도 사람들에게 제주는 서울, 부산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위한 ‘희망의 땅’이었다 (염미경 2015: 57). 이 호남이주민들은 당시 제주항 근처에 집단 거주촌인 ‘해남촌’이나 ‘호남향우회’ 등을 통하여 제주사회에 적응해 나갔다.

1970-75년의 제주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7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출산율 수준이 높지 않았고 대량 이출초과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성장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유입인구 초과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창기, 1999: 39, 40, 42-43, 89). 따라서 총 이동량도 197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대 후반 5년간의 총 이동

4) 김아람, 2017, 한국전쟁기 제주 피난과 이주, 그리고 정착, 2017년 (사) 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62-86

량이 2만7천 명 정도이던 것이 1970년 이후에는 5만 명, 1985년 이후에는 6만 명을 넘어섰다. 1960년대까지 제주의 인구이동이 전쟁이나 개발사업의 추진 등 특수 상황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1970년대 이후는 꾸준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유출요인) 등의 외적 요인과 제주 농업의 특수성과 관광개발(유입요인)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해 제주 인구의 유동성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창기, 1999: 89). (염미경 2015: 63)

이 시기 제주항에 도착한 호남인들은 제주이주 초기에는 저변층 일용노동자로서 제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귤수확 노동이나, 제주항에서 수확된 감귤을 육지로 운송할 때 지게꾼 역할을 하거나, 단순직종인 노무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다. (염미경 2018: 69-72). 한편 지역 토박이도 아닌데다 일일노동자와 하층민에서부터 시작해 제주사회의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호남인들은 상당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낙인에 시달렸다. 이에 대처하는 생존전략으로서 호남인들이 제주에서 높은 수준의 집단적 결집을 해나갔고, 이는 다시 제주에서 호남인의 지역집단으로서의 등장을 가속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염미경 2018: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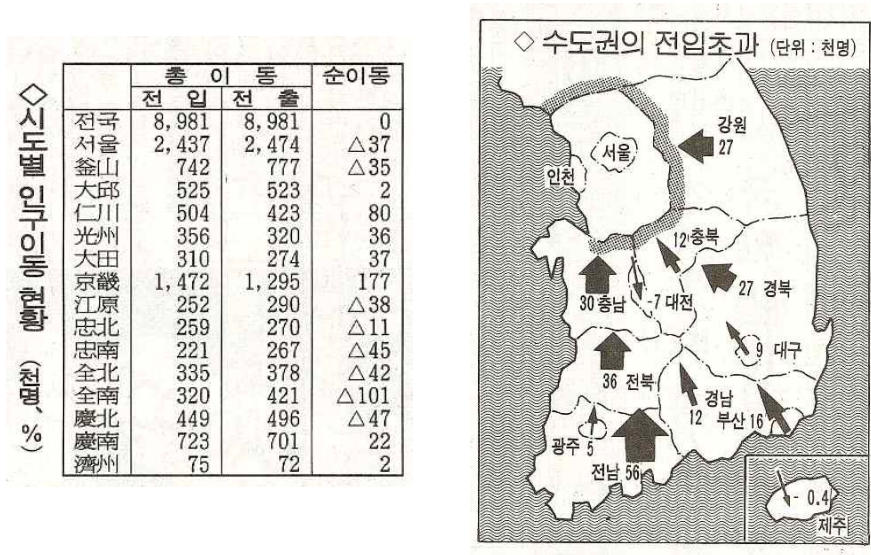
■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이주 (1) : 제주도의 이주민 정착장려 정책

산업화 시기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한국 전역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의 이주흐름이 매우 현저했다. 제주도 마찬가지로, 1990년 5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⁵⁾ 제주에 “취학대상 어린이가 없어 신도국교(남제주군 대정읍)에 흡수돼버린 보흥분교를 비롯, 88년에 광명분교·화전분교가 폐지되고 작년에 새달분교도 중문국교에 흡수되는 등 최근 3년사이 5개 분교가 폐쇄됐지만 워낙 주민수가 적어 유아원 등으로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제주도내 군지구 농어촌지역 1백71개리에 빈집이 1천여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곳은 거의 없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지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많은 지방인구가 서울로 몰려들었던 1990년대에도 미약하나마 지방으로의 역이주흐름이 존재했고, 아래 표와 그림이 보여주듯, 순유입 인구가 증가한 지역도 있었다 (출처: (서울경제 1992.7.18. 김준수 기자, “5명중 1명 이사…80년이후 최저”). 그 중의 하나가 제주인데 1990년대 제주로의 인구유입을 이끈 동력은 그린벨트 해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그리고 제주도에서 1990년대부터 활발히 실시하기 시작한

5) 기자명 확인불가, 1990.5.30., “빈집·빈교실 문화공간으로 활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66471>

이주민 유입정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1990년도 제주로의 인구전출입 현황.

1990년대 이촌향도의 흐름 속에서, 문민정부의 시작과 함께 더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된 지방 정부는 저마다 인구유입과 지역발전 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제주도 마찬가지인데, 1990년대부터 제주도정은 이주민 모집과 정착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들을 실시했다.

1990년대 초반에도 제주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외지인들의 구매는 활발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보다 외지인에 의한 토지 매입 비율이 높았다. 그 중, 외지인의 토지 취득율과 전입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제주이다.

“이들 외지인 취득토지가 전체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62.2%로 가장 높았고 서울 등 수도권은 54.6%,대구 54.1%,울산 52.4%,부산 51.6% 등의 순이었다.”

(출처: 한국일보, 1993.8.31., 송태권 기자, 71년 지정후 53% 주인 바뀌었다/그린벨트 전국 실태 첫 조사)

“(그린벨트) 지정후 전입인구 비율은 수도권이 71.4%,6대도시는 58.7%,중소도시는 39.5%로 수도권이 중소도시의 2배 수준이며, [...] 전입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72.5%), 수도권(71.4%), 마산 진주(57.0%), 부산(50.1%)등이다.

(출처: 동아일보, 1993.8.31., 조현주 기자, 원주민—투기꾼 땅 選別개발 허용 그린벨트 실태따른 규제완화 방안)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위장전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사에서 언급된 대로, 실제 제주에 거주하는 순유입 인구가 정말로 높았는가는 섬세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1990년대에도 미약하나마 제주로의 순유입 인구가 관찰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아래 기사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제주도정이 이주민 유입과 정착에 어떤 관심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실직자 복제주로 오세요’

제주 복제주군이 「인구 10만명 채우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10만명이 넘을 경우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때문에 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도 늘어나는데다 조직관리 지침상 직제를 2개과나 더 늘릴 수 있어 군청의 위상도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복제주군의 인구는 9만9천3백95명. 605명만 끌어들이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복제주군은 서울 등 대도시 실직자들을 우선 이주권유 대상으로 잡았다. IMF한파로 직장을 잃은 그들이야말로 도시생활에 대한 환멸이 깊어 삶의 터전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전원생활」을 내건 이주 권유를 쉽게 받아들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 신철주 복제주군수는 「청정지역에서 각종 편의 제공을 받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은 도시실직자들에게 강한 유혹이 될 것」이라며 「멀지 않아 채도하는 신청자들을 선별하느라 골치를 썩일지도 모른다」고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출처: 중앙일보, 강홍균 기자, 1998.11.5.)

‘인구 늘리기’ 정책 다양화 절실

서귀포시민들이 제민일보가 신년기획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구유입책, 제2관광단지 개발, 신시가지 활성화 등을 최대 지역 현안으로 꼽고 있지만 시의 추진시책은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인구유입책(41%), 제2관광단지 개발(17%), 신시가지 활성화(15%) 등의 순으로 지역 현안을 제시했다. 반면 취약한 산업구조와 경기침체 등의 내·외부 환경으로 올해에도 시의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시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 인구 감소는 젊은층들이 교육·일자리 등 서귀포시보다 더 나은 경제·교육·주거·직업 환경을 보유한 제주시와 도외지역으로의 전출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제민일보, 박훈석 기자, 2005.1.7)

“차별화된 은퇴자 유치 프로젝트 수립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5~6년 이내에 은퇴할 도시지역 고소득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중산층 이상의 차별화 프로젝트 및 파격적인 입주조건 제시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송양민 조선일보 선임기자(보건학 박사)는 10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남서울프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차 지역경제세미나에서 부가가치 창출·인구유입 효과가 높은 고소득 은퇴자 유치 전략 수립 등 제주도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 송 기자는 “주식·부동산 재테크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 597만명 중 1%만 유치해도 6만명이 제주로 이주하고, 부부 2명을 기준으로 매년 2000만원씩 20년간 지출하면 12조원이 지역경제에 유입될 것”이라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분석했다. 송 기자는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 제주도는 정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차별화된 대한민국 최고의 ‘은퇴마을 브랜드’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10년 이내에 추진할 △1단계(임시체류형) △2단계(정착형) △3단계(프리미엄급)의 준비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은퇴마을 성공 조건으로 송 기자는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의 타깃 설정 △재산세 감면·골프장 주중 이용료 대폭 할인·지역대학 연계 학위 프로그램 제공 △가격 할인·우대 적용 등 정착비용 부담 축소를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김철희 JDC 부이사장,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 진관훈 제주도 경제특보, 김형길 제주대학교수는 제주은퇴촌 육성을 위해 선진국 경험 활용 및 제주도의 강력한 정책의지, 도민의 열린 마인드 향상 등을 주문했다.

(출처: 제민일보 2007.7.11., 박훈석 기자,)

제주정착 인사를 '제주보배'로

제주에 정착한 인사들의 경험과 경륜이 우대, 활용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정착인사 예우방안 및 활용 시스템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정착인사를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도, 행정시, 읍면동 홈페이지에 정착인사 자료실을 마련하고 담임교수와 담임도민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워크숍, 각종 행사 때 정착인사를 활용키로 했다. [...] 제주정착인사의 제주정착 성공스토리(건강회복, 행복한 노후 설계, 귀농·귀촌, 사업성공 등) 및 미담사례도 적극 발굴, 전파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정착인사의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추진 사항을 수시로 평가하고 도내 정착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착인사 관리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키로 했다.

(출처: 한라일보, 위영석 기자, 2011.8.4)

이러한 자료들은 제주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제주인들의 육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라는 정서적, 문화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제주도정의 정책 차원에서는 외지인과 이주민이 적극적인 유입장려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 2010년대 후반에 가속화된 라이프스타일 이주의 출현은 일정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동시에 경제, 사회, 상징자본을 모두 갖춘 이주민을 정착시키고 싶다는 제주도정의 욕망과 의지가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된 현상처럼 보인다.

연구자가 만난 여러 제주인들은 2010년 제주이주열풍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에 자발적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뿐더러,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육지에서서의 개인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주에 온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한 모슬포 주민의 표현에 따르면 “육지에서 잘 안 풀린 사람들”, 한 성산읍 고령해녀의 표현에 따르면 “봇시장수 같은 육지것”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를 뜨내기’로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주민’에 대한 제주인들의 관점을 규정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2010년대 자발적 귀촌 이주를 택한 청년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제주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시각이 형성되었다. 2010년대 제주이주의 특이성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1995년에 쓰인 한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기사는 제주도가 ‘삶의 질’ 측면에서 거주하기 괜찮은 장소라는 인식이 1990년대 중반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전국의 74개 도시 「삶의 질」을 비교해 본 결과 몇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 경제적 소득기반을 갖추고 교통이 편리한 남해안, 동해안 등의 전원도시가 살기 좋다는 점이다. 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기존의 재래도시보다는 계획도시와 신개발도시가 생활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도는 조선조에 벼슬이 떨어진 사대부의 유배지로, 해방 후에는 좌우의 격렬한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으나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부각됐다. 이는 36개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 설정 과정에서 수질과 대기오염 등 환경관련 지표가 가장 무게있게 다뤄지면서 오염이 거의 없는 서귀포와 제주시가 높은 평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학진학률과 취업률등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이들 도시가 상 위에 오를 만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서귀포는 6개 부문중 안전한 생활과 편리한 생활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건강한 생활부문에서도 과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문화생활(2위)과 경제적 생활(7위),교육, 복지여건(11위)도 상위권에 랭크됐다. 제주시 역시 교육, 복지부문(7위)과 문화생활면(11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됐고 나머지 분야에서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중앙일보, 1995.1.4., 길진현 기사, “어느 도시가 살기 좋은가” 1. 종합평가 - 순위별 특징분석)

이 자료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주에서 가시화될,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라이프스타일 이주”의 장소로서, 제주가 이미 충분한 매력과 인구유인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이주가 어째서 2010년대에 와서야 가능해졌을 까의 문제는 아래에서 더 살피기로 한다. 제주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자연적 매력과 아름다움이 실제로 도시인들, 특히 30-40대 청년인구의 이주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전, 저가항공 등을 통한 육지로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기술적 요인 외에도, 한국 내에서 ‘하면 된다’라는 생산주의적 성공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IMF 경제 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축적되어 2010년도에 가시화되었다고 판단된다.

■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이주 (2) : 다문화가정의 증가

1990년대에 출현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가시화된 제주이주의 중요한 경향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 다문화가정의 증가다. 2000년대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설립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선 이래,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안전행정부가 2024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보면, 한국의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6,627명에서 2023년 2,459,542명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이는 한국 전체인구의 약 4.8%에 달하는 상당한 숫자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약 50% 이상이 거주한다.

< 전년 대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단위 : 명)

구분	외국인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3년	2,459,542	1,290,104	1,169,438	1,935,150	470,250	180,072	206,329	410,972	667,527	234,506	289,886	
	전체 외국인주민 (영대비구민비)	52.5%	47.5%	78.7%	19.1%	7.3%	8.4%	16.7%	27.1%	9.5%	11.8%	
'22년	2,258,248	1,159,287	1,098,961	1,752,346	403,139	175,756	189,397	397,581	586,473	223,825	282,077	
	전체 외국인주민 (영대비구민비)	51.3%	48.7%	77.6%	17.9%	7.8%	8.4%	17.6%	26.0%	9.9%	12.5%	
증감	201,294	130,817	70,477	182,804	67,111	4,316	16,932	13,391	81,054	10,681	7,809	
	8.9%	11.3%	6.4%	10.4%	16.6%	2.5%	8.9%	3.4%	13.8%	4.8%	2.8%	

<표 1>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23년 기준 제주의 외국인인구는 36,830명으로 총인구대비 5.4%에 달한다. 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들을 전부 합한 수치다. 2023년 제주 외국인근로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남성이 8929명, 여성이 2356명이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성이 553명, 여성이 2508명이다. 황석규 외(2015)에 따르면, 제주의 다문화가구는 2009년까지 전년도 대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2006년에는 도민 전체 인구의 0.5%(제주 561,695명, 외국인 2,645명), 2009년은 1.2%(제주 567,913명, 외국인 6,944명), 2011년은 1.5%(제주 583,284명, 외국인 8,499명), 2014년에는 제주의 2.6%(제주 607,346명, 외국인 15,568명)에 달했다. 2025년 기준, 제주의 다문화가구는 총 6164가구로 전체 제주가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호남지방통계청 202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이 많은데, 최근에는 캄보디아, 네팔, 중앙아시아 등으로 이주여성 출신이 다변화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직면하여, 제주도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부터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정을 비롯,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사업들의 몇 가지 예만 들면,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업,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사업,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사업 등이다.

아래 통계자료와 지도는 제주가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속하며, 동시에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제주 결혼이주민의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겪는 타지살이의 어려움, 문화와 언어 차이, 가정폭력과 이혼, 국적취득의 어려움, 빈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소영 2009, 정영태 2013, 황석규 외 2015)

<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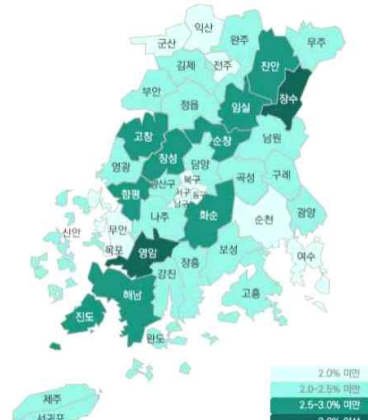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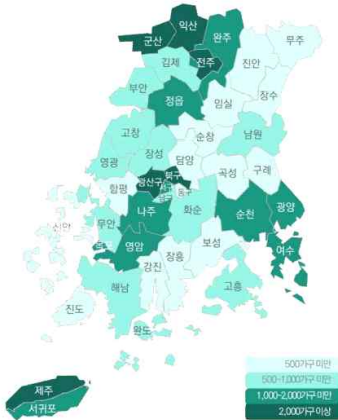
시·도	총인구 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계	51,774,521	2,459,542	4.8%	100.0%
서울특별시	9,384,512	449,014	4.8%	18.3%
부산광역시	3,279,604	83,401	2.5%	3.4%
대구광역시	2,379,188	58,944	2.5%	2.4%
인천광역시	3,025,950	160,859	5.3%	6.5%
광주광역시	1,457,090	46,859	3.2%	1.9%
대전광역시	1,470,336	39,969	2.7%	1.6%
울산광역시	1,107,432	41,698	3.8%	1.7%
세종특별자치시	386,261	10,451	2.7%	0.4%
경기도	13,815,367	809,801	5.9%	33.0%
강원특별자치도	1,528,014	46,856	3.1%	2.0%
충청북도	1,641,481	89,823	5.5%	3.6%
충청남도	2,216,332	155,589	7.0%	6.3%
전라북도	1,768,491	73,802	4.2%	3.0%
전라남도	1,776,668	86,729	4.9%	3.5%
경상북도	2,589,880	118,274	4.6%	4.8%
경상남도	3,271,148	150,643	4.6%	6.1%
제주특별자치도	676,767	36,830	5.4%	1.5%

<표 2> 2023년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제주)

(출처: 행정안전부, 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현황”, p.4)

【 2023년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수 】

【 2023년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비중 】



<그림 3> 2023년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수 및 비중

(단위: 가구, %)

순위	다문화 가구 수 상위 5순위						다문화 가구 비중 상위 5순위					
	시(市)		군(郡)		구(區)		시(市)		군(郡)		구(區)	
1	제주 제주시	4,324	전남 영암군	1,053	광주 광산구	3,750	전북 정읍시	2.4	전남 영암군	3.8	광주 광산구	2.2
2	전북 전주시	3,497	전북 완주군	1,010	광주 북구	2,341	전북 남원시		전북 장수군	3.0	광주 북구	1.2
3	전북 익산시	2,362	전남 해남군	794	광주 서구	1,196	제주 서귀포시	2.3	전북 순창군	2.9	광주 남구	1.1
4	전북 군산시	2,247	전남 무안군	709	광주 남구	959	전북 김제시		전북 진안군		광주 서구	0.9
5	전남 여수시	1,868	전남 화순군	667	광주 동구	454	전남 나주시		전남 장성군		광주 동구	0.8

자료: 「인구총조사」, 통계청

주. 다문화 가구 비중 = (다문화 가구 수 / 전체 가구 수) × 100

〈표 3〉 2023년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수 및 비중 상위 5순위

(출처: 호남지방통계청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2025. 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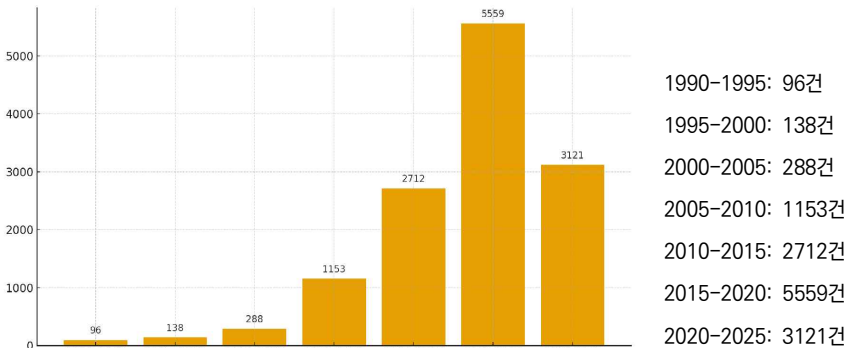
2. 2010년대 제주이주의 특이성

2-1 2010년대 제주이주의 특이성

2010년대 제주이주는 기존 이주들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세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1. 20~40대 청년층이 이주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 생계나 직장 등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쉼과 휴식, 더 나은 삶의 질을 주요 이주동기로 한다.
3. 정치적 망명이나 피난, 기타 자연재해 등의 이유가 아닌,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이주다.

다시 말해, 2010년대 제주이주는 청년 귀촌이주의 성격이 강하고, 생계형·취직형 이주와 구별되며, 제주에 대한 긍정적, 유토피아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주다. 또한 형식 면에서 제주이주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전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도향촌 이주, 또는 귀촌이주의 가장 괄목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제주가 대중에게 잠재적 이주장소로서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검색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Bigkinds.or.kr)에서 1990년도부터 5년 단위별로 “제주 이주”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건별 기사들이 도출된다.



〈그림 4〉 1990~2025년 사이 ‘제주 이주’가 포함된 뉴스 빅데이터 검색 결과

위 그래프를 현상적으로 보면 2000년대 후반부터 제주가 잠재적 ‘이주 대상지’로서 대중에게 어필하기 시작했고, 그 관심은 2010년 후반에 정점에 달했다가, 코로나 시기 이후 다소 꺾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자가 만난 이주민과 제주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떠나야 할 장소’에서 ‘살고 싶은 장소’로의 인식 변화도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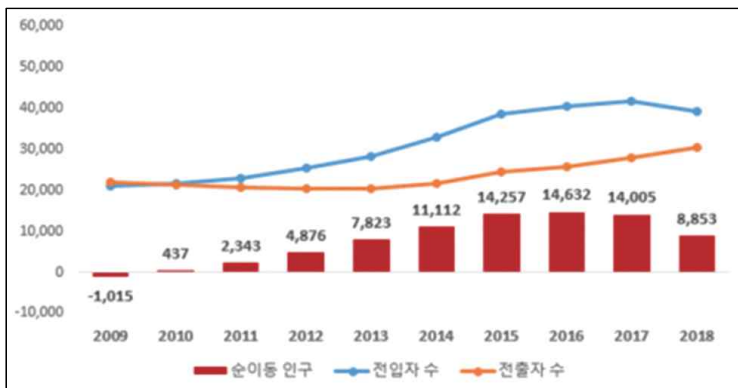
“제주가 살고 싶은 곳이 된 게 제일 크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려고 했어요. 와서 살겠다는 상상 자체를 안 했으니까”

(모슬포 거주 제주도민, 50대)

“가만 보면... 옛날엔 육지가 싫어서 제주로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주가 좋아서 제주로 오죠”

(남원 거주 이주민, 40대)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 시기 제주이주의 가장 큰 특징은 30~40대 청년들, 즉 생산가능연령의 유입이 도드라졌다는 것이다. <제주인구 유출입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을 다룬 고태호의 연구(2019)에 따르면, 2009년 2018년 사이, 제주 인구증가는 자연증가가 아닌 사회적 증가(이주민 유입)가 견인했으며 유입된 인구의 약 60%가 20대~40대였다(고태호 2019: 23). 그 연구는 동시에,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훨씬 상회해 제주로의 순유입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전출인구도 매해 2만명을 넘어서며, 특히 20~40대 생산연령인구의 전출이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그림 5〉 2009~2018년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 추이 (고태호 2019: 18에서 인용)

연구의 정책적 제언에서, 고태호는 ‘생산연령인구의 확대’라는 제주도의 인구정책에 걸맞게 20대 및 30~40대의 정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통합정착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강화」, 「정착주민 및 청년층 주거지원」, 「청년센터 및 더큰내일센터 활성화」, 「교육서비스 기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고태호 2019: 53)

(단위 : 명)

구분	2009	2012	2015	2018(비중)	증가율			
					'09~'12	'12~'15	'15~'18	'09~'18
10대 이하	4,210	5,014	7,064	6,911(17.6%)	6.0%	12.1%	-0.7%	5.7%
20대	4,996	4,992	6,708	7,938(20.3%)	0.0%	10.4%	5.8%	5.3%
30대	4,840	6,138	8,817	8,554(21.8%)	8.2%	12.8%	-1.0%	6.5%
40대	3,355	4,267	7,192	7,033(17.9%)	8.3%	19.0%	-0.7%	8.6%
50대	1,956	2,809	5,293	5,088(13.0%)	12.8%	23.5%	-1.3%	11.2%
60대 이상	1,545	2,001	3,470	3,665(9.4%)	9.0%	20.1%	1.8%	10.1%
합계	20,902	25,221	38,544	39,189(100.0%)	6.5%	15.2%	0.6%	7.2%

〈표 4〉 2009-2018년 기준 제주지역 연령별 전입인구 추이 (고태호 2019: 23에서 인용)

2010년대 제주이주의 성격과 경향변화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분석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2010년대 제주이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2000년대의 사건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인터넷 기업 DAUM의 제주이전이다. DAUM의 제주이전은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에서 여러 모로 중요한데, DAUM 임직원들이 제주의 여러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발탁되어 제주의 디지털화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당시 DAUM의 기업문화 내에 이미 혁신과 도전에 기반한 기업가 정신, 대도시가 아닌 ‘로컬’의 중시,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등 2010년대 후반의 청년 제주이주민들에게서 관찰되는 테마들이 이미 씨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기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즐거운 실험중"..이재웅 다음 사장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지점. 6백평 규모의 펜션에서 NIL(지능화연구소)팀 직원 15명이 지난 4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사무실 창문으로 밀려들어오고 뒷편으로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푸른 잔디가 나풀거리는 앞뜰엔 족구장이 마련돼 있다.

지난 15일 제주지점을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본사 이전을 위한 실험에 들어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재웅 사장(36)은 "다음의 제주 이전 프로젝트는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같은 정책적인 지원보다는 인터넷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근무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 사장은 다음의 초창기 주요주주였던 독일 베텔스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들이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서 타운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사 제주 이전을 결심하게 됐다. 그는 "베텔스만은 인구 2만의 소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전세계에 6백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며 "본사가 소도시에 있다 보니 근무환경이 쾌적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외부로 뿔어나가려는 진취적인 자세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경제, 2004.7.17. 박영태 기자)

2-2.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및 가치지향 변화

한때 '제주이주열풍'이라 명명될 정도로 강렬했던 제주로의 인구이동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더 큰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제주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자연, 독특한 문화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그와 맞물린 개인들의 가치지향 변화 때문에 육지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시차 효과'처럼,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고도성장과 도시화의 피로가 증가하면서, 또 청년층의 경우, 더이상 개인적 노력이 그에 합당한 사회적 기회와 지위상승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서, 제주도가 가끔씩 왔다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대안적 삶의 장소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귀농귀촌 이주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귀촌이주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80년대, 군부독재 하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반감과 좌절로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 집단이 존재했지만 (유정규 1998), 그 숫자는 많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주요한 이주흐름은 이촌향도였다.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귀농귀촌 이주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으나 약 반세기 안에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조국 근대화와 부강을 목표로 한 새마을운동을 실시했다. 이 운동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서 국민들의 물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별 마을 단위의 전기, 수도, 가옥개조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정신개조의 차원에서 국가는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 등의 기치로 성장과 발전, 근대화를 추진했고, 국민들이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적, 생산주의적 삶의 방식을 가질 것을 권장했다. 그와 함께 근대성, 과학, 합리성 등과 결부된 긍정적 의미의 ‘모더니티’를 지향하며, 여러 전통적 풍습들을 부끄러운 것, 낙후된 것, 미신으로 규정하며 타파하고자 했다. 국민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동에 호응하였고 (임한성, 임재강 2013: 158)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성과주의, 생산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일어나면서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주하는 이도향촌 이주가 가시화된다(엄은희 2012). 새마을운동과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매혹의 대상으로서 달려갔던 경제발전, 넓은 의미의 근대성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오고, 느낌과 심, 휴식에 대한 갈증이 커져 제주가 새로운 삶의 장소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귀농귀촌 이주의 증가와 더불어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의 관계 및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농촌은 더 이상 농업, 축산업에 기반한 생산주의 이념이 아니라, 포스트생산주의적 가치가 중시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엄은희 2012).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농촌공간은 전통적 의미의 농업생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인의 유목적 욕망이나 유토 피아적 열망이 투영되는 공간(진양명숙 외 2014, 부혜진 2015), 도시인의 유치, 정착을 늘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하에서, 낭만화된 장소로 재현되는 공간(진양명숙 2015), 촌락 젠트리피케이션과 이주민의 공간 전유가 진행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박경환 2017, 박경환·윤희주 2018). 따라서 농촌은 더 이상 ‘전통적 마을공동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이해관계의 공간이 되었다(주문희 2019).

2007년에 쓰여진 기사 한 편은 2010년대 제주이주의 중요한 테마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주의, 개발주의 이념에 대한 반성이라는 한국사회의 지향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는 제주 올레길을 기획, 조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서명숙 씨가

시사인에 기고한 글이다. 그녀는 올레길을 기획하기로 결심한 연유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보아라, 제주의 속살을...

산티아고 길에서 품은 소망은 네팔의 설산을 오르면서 더 절실하고 단단해졌다. 산티아고 길과 네팔은 각기 다른 아름다움과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두 곳에는 한결같이 바다가 없었다. 제주도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늘 푸른 바다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지 않은가. [...] 틈만 나면 제주에 걷는 길을 만들겠노라고 떠들고 다녔더니, 주위의 여자 선후배들이 맨 먼저 반응을 보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가서 걸어보자!” [...] 일종의 ‘테스팅 마켓’(제품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의 반응을 시험해보는 시장)인 셈인데, 어디로 이들을 데려간담? 망설이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단연 서귀포 칠십리였으니까. [...] 어른이 된 뒤 찾으니 그 길은 싱거우리만큼 짧아서 서운했다. 흙길은 거의가 콘크리트로 덮이거나 수입산 나무로 단장되었지만, 여전히 서귀포 바다는 푸르렀고 그 바다 위의 섬들은 그림 같았다. 아니, 길은 변했어도 산천은 더 아름답고 정겨웠다. 열망하던 도시에서 치솟은 잿빛 빌딩과 아파트 숲에 치이고 시달린 끝에야 제주 바당(바다의 제주어)이 주는 위안과 평화를 깨닫게 된 내게는... [..]

내 어린 시절 1960~1970년대의 서귀포는 신혼부부의 파라다이스, 도보여행자들의 메카였다. 골목마다 여관이 있었고, 사람들은 주민이건 여행자인건 느릿느릿 걸었다. 굴림여관, 장춘여관, 유림여관 근처에는 배낭을 멘 여행자가 무리지어, 혹은 혼자서 신발끈을 풀고 있었다. 현대 제주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생겨나면서 서귀포에는 도보여행자는 물론 하룻밤 묵어가는 여행자도 드물어졌다.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하려고 떠나는 여행에서조차도 ‘빨리빨리’ 섬을 한 바퀴 돌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슨 무슨 박물관이나 놀이시설을 ‘하나라도 더’ 보려는 속도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주위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고 나자 ‘제주 걷는 길’ 만들기에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위기에 처한 제주 관광의 새 활로를 찾으려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제주 올레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출처: 시사인, 서명숙 기자, 2007, 10.1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

이 짧은 글에는 섬과 느낌, 치유라는 2010년대 제주이주의 중요한 테마가 간결하게 담겨 있다. 그녀는 “잿빛 빌딩과 아파트 숲에 치이고 시달린 끝에야” 제주 바당의 위안과 평화를 알게 되었고, 여행에서조차 “빨리빨리”라는 강박과 속도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보 속에서 경험하는 느낌과 여유를 알려주고 싶다고 썼다. 도시적인 것, 문명적인 것, 현대적인 것에 염증을 느낀 뒤에, 제주 올레가 관광객, 지역 주민, 제

주도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전역에서 귀농, 귀촌이주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면 2010년대부터는 청년층의 귀촌이주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는 한국 청년들의 귀촌이주에 대한 연구들이 여럿 생산되었는데, 해당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을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곤경과 연관지어 분석한다.

가령, 김반석(2019)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학 졸업-취업-결혼이라는 “정상적 생애모델”이 불가능해진 청년세대의 곤경이 귀촌이주 현상을 추동한 핵심요인으로 본다. 2015-16년경 제주이주를 연구했던 아그네스 조던Agnes Jordan은 제주이주를 1997년 IMF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학업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중산층의 분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계급적 하강이동”을 겪는 중산층 청년들이 제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의 장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Jordan 2019). 임하결은 남해의 청년 귀촌이주 연구에서 이주민들이 도시에서 경험한 경쟁 및 경제적 불안이 주요 이주동기였다고 지적한다(임하결 2022). 홍남희는 일상화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존 중심의 삶에 대한 반발(홍남희 2023)이, 이경은은 청년 여성귀촌이주민을 다룬 논문에서, 해당 이주민들의 경우 도시의 익명성과 가부장제에서 오는 고립감과 답답함(이경은 2019)이 주요 이주동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부동기나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경쟁과 성과 중심의 실망스런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청년 귀촌이주의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20-40대이므로 2010년대 제주이주 역시, 이러한 청년 귀촌이주의 가장 괄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주민들의 주요 이주동기가 도시에서의 직장경험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실망감이므로, 2010년대 제주이주 연구는 향후 당대 한국사회의 청년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크게 변화한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가거나 노동시장에 나온 세대의 곤경이 제주이주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처음 노출된 세대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 대략 제주이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령층과 맞먹는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대학 졸업-취직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일반화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졸업-취직-결혼이라는 안정적 삶의 전망이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부모세대와는 달리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분투하고 노력해도 더 이상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발견

할 수 없는, “노력이 배신당하는”(조한혜정 외 2016)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 한국 청년들은 스스로를 “헬조선”을 살아가는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 자조했다. ‘열정페이’, ‘갑질’,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의 일반화, 쉬워진 해고로 인한 미래의 불투명성 등, 여러 사회적 곤궁과 압력 하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의미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은 실체가 아닌 담론의 세계를 구성하므로, 그 자체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의 공감을 얻고 널리 사용된 이상, 당대 20-30대 청년들의 경험세계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측면이 있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요약하면, 이러한 청년 세대의 곤경이 2010년대 제주가 20-40대 인구에게 새로운 대안적 삶의 이주처로서 부상하게 된 배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2011년에 쓰인 다음 두 편의 기사는 앞이 안 보이는 무한경쟁에 지친, “경쟁이 싫고, 바름이 싫어서” 제주로 향하는 청년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주 앞 홍대, 제주 옆 티벳

[...] 가을걷이를 하듯 제주도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물을 드리우는 대로 꼭 채울 수 있었다. 여러 형태의 이주자 중 주로 ‘문화 이주자’를 찾았다. 삶의 시계를 늦추고 제주도에 가서 문화적인 일을 도모하며 반은 재미로, 반은 업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제주의 문화 지형이 바뀌고, 제주가 더 매력적인 섬, 더 머물고 싶은 섬으로 바뀌었다는 판단에서다. [...] 우후죽순으로 제주도에 들어서던 펜션의 유행이 끝나고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그 흐름을 ‘문화 이주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 문화 이주자들이 즐겨 찾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 ‘OOO’은 아주 한가했다. [...] 스스로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OOO은 일종의 ‘치유형 게스트하우스’라 할 만했다.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어 서로를 보듬고 있었다. 11월8일, 티벳풍경을 방문했을 때 30대 초·중반 남녀 4명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말을 섞어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손님이 아니었다. 이곳에 장기 투숙하다가 근처에 연세를 얻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들 대부분은 치유를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고 한다. 마루에 누워 있던 OOO씨는 “8년 동안 한 번도 휴가라는 것 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러다 제주도에 여행을 왔다가 문득 고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을 줄 수 있는 나만의 고향을 만들기 위해 여기 있다”라고 말했다. [...]

건너편 그네에 앉아 있던 이승철씨(35)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아팠다.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곳에 여행을 와서 4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다. 사는 것이 먼저고 일은 나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바보처럼 멍하니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카페를 맡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에서 수해방지 사업체에서 일했다고 했다.

(출처: 시사인, 고재열 기자, 2011.12.2고재열, 시사인, 2011-12-02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여기 등장하는 게스트하우스는 “8년동안 한번도 휴가라는 것 없이 바쁘게 살”아서, 지쳐 있는 청장년 세대에 “치유형” 공간을 제공한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아프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다른 이주민은 제주로 건너와 카페를 차리게 되었다. 이 시기 제주로 건너온 청년들은 무엇보다 지친 청년들이고, 그들이 제주에서 발견했던 것은 쉼과 치유, 그리고 휴식이다. 1년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카페를 맡게 되었다”는 증언처럼, 이주민들이 제주에 와서 가장 많이 열게 된 것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였다. 다음 기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들이 그 섬에 자진유배간 까닭은

[...] 섬사람들은 젊어 육지에서 건너온 이들을 놓고 수군거렸다. 무슨 곡절이 있었기에 섬으로 건너왔느냐고. 그럴 만도 했다. 물에서 살던 이들이 제주도로 갈 때는 아는 이 없는 곳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사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여생을 보내겠다는 은퇴자들이 가장 우아하게 이주하는 경우였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휴가철 행락지였던 제주도, 그나마 외국여행 붐과 함께 가족 여행이나 단체 관광의 장소로만 여겨지던 제주도를 ‘자발적 유배지’로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반듯하게 학교를 마치고, 번듯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홀연히 제주로 향하는 것이다. 동기는 대부분 비슷하다. 도시에서의 경쟁이 싫고, 그곳에서의 빠름이 싫었다. 천천히 제주도를 다니다가 제주의 매력을 발견했다. [...] 서귀포시 OO면에 있는 OOO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다. 그 전까지 가난한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는 전부 바다에 있었다. [...] 결혼 뒤 5~10년 지나 내려오기로 했던 그들은 그러나, 1년 반 만에 섬으로 가는 짐을 싣다. 서대문에서 수원까지 출퇴근하는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행락이 아닌 휴식을 위해 제주를 찾는 이들. 며칠간 조용히 머물며 책을 읽거나 주변을 산책하는, 이름처럼 게으르고 느린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레이저박스는 안성맞춤이었다. 새롭고 다른 삶을 꿈꾸는 이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일도 늘어났다. 그들 모두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앞이 안 보이는 무한 경쟁에 지쳐 있었다. 지금의 30대는

대부분 19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때를 전후해서 사회에 나온 세대다. 야간자율학습은 있어도 심야학원강습은 없었던 때 학창시절을 보냈다. 환란을 겪으면서 나이가 어리면 대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많으면 종신고용 신화가 붕괴되는 걸 봐야 했다. 이종진씨는 “경쟁을 피해 제주도로 향하는 30대가 많아지는 게 우리 사회 성장의 룰이 깨지는 단계가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출처: 한겨레매거진esc, 김작가, 2011. 3. 24.)

III. 문화이주에서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2부에서 제주이주의 역사와 2010년대 이주의 특이성을 짧게 살펴보았다면, 3부에서는 2010년대 제주이주의 성격을 그 전개과정과 경향변화를 통해 더 깊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대 제주이주의 변화를 ‘문화이주’에서 ‘제주형 라이프스타일 이주’로의 변화로 파악하고, 그 변화의 배경과 각 이주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2010년대 초반의 문화이주

1-1. 문화이주의 동기

2010년대 초반 제주이주는 “문화이주”로 명명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까지 언론 및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 기원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신문기사 빅데이터 검색(Bigkinds.or.kr)에 따르면, “문화이주”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기사는 고미기자의 제민일보 2012.1.1.일 기사 ““다른 곳요? 이제는 못 가요! [우리는 '제주파(派)'다]” 다. 한 이주민/카페운영자를 소개하는 이 기사에 “적어도 1년을 살아봐야 제주 안다... 문화이주 변화 담은 지도 계획“이라는 짤막한 한 줄이 적혀 있다.

‘문화이주’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보고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2013년 출간된, 심보선 외 <제주의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가의 제주이주 현황조사>다. 연구팀은 “‘문화이주자’는 그 기원이 정확하지 않으나 정책 담당자들과 언론 종사자들에 의해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되고 있는 용어“이며, 한시적으로 이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해당 연구의 대상이 “최근 제주도에 유입되고 있는 ‘문화이주자’, 즉 ‘제주도로 이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라고 밝힌다 (2013: 12-13). ‘문화이주’의 정의 제시를 보류하고 있긴 하나, 위 보고서는 실제 본문에서는 ‘문화이주’를 ‘문화예술인들의 제주이주’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문화이주’라는 용어의 모호성은 후속 연구나 기사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된다. (김

민영, 최현 2015, 이광준 2015, 김동현 2017, 부혜진 2018). 가령 지금종은 삶과 문화 2012년 겨울호 (47)에 발표된 글 “제주 문화이민에 대한 몇 가지 짧은 생각”에서 “그런데 ‘문화이민자’는 정확한 표현일까? 이 말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주했다는 걸 의미하는가? 아니면 문화적 이유로, 혹은 문화활동을 위해 이민을 했다는 걸까? 모호한 표현이다.”고 자문하고 있다. 김민영, 최현은 2015년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문화이주’라는 용어의 애매성을 문제삼으며, 대신 “문화·예술 정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부혜진은 2018년 논문, “창조계층으로서 문화예술인들의 제주이주와 그것이 지역관광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이주자’를 ‘문화예술 이주자’라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국한시켜 사용하고 있다. (2018: 22)

그렇다면 ‘문화이주’에서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2015)에서 김민영과 최현은 ‘문화이주’라는 용어를 피하고, ‘문화예술 정착’이라는 용어를 택하면서, 그 유형의 이주가 가진 중요성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문화 예술 정착이 제주 순유입 인구 집계에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실제 제주 지역사회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형이다. 현재 문화 예술 종사자들은 ‘벨롱장’ 등과 같은 시골장을 통해 제주 지역 마을 단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서귀포뽕데리총전소’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을 열어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 예술인들이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여 지역 사회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리얼 제주 매거진 in’ 과 다양한 SNS, 블로그 활동 등으로 끊임없이 제주에서의 삶을 미디어에 노출시켜 제주 이미지를 주도적으로 생성하기도 한다. 벨롱장, 월평리의 문화협동조합, 가시리 창작문화지원센터 활동 등과 같이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모여 작업하는 공간 및 활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 여론에 보고되고 있다. 제주의 콘텐츠가 문화 예술 종사자들의 욕구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앞서 살펴본 바처럼 문화 예술 종사자들의 이주가 새로운 제주 이미지의 생성하고 있기도 하다. (김민영, 최현 2015: 61)

그리고 논문의 결론부에서 2010년대 제주이주에서 ‘문화’가 갖는 중요성을 다음처럼 지적한다.

[...] 앞서 살펴본 바처럼 제주 이주에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삶의 지향 변화라는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소득과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소득과 소비가 줄더라도 안정되고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주자들의 가치관인 것이다. 각종 조사 및 출판 간행물,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제주 이주의 중요 요인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도 지원 정착인 기업이전 정착과 교육 정착을 제외하고는 귀농 귀촌 정착, 창업 정착, 문화 예술 정착 모두 제주로 이주에는 경제적 요인보다 도시생활에서 탈피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작용했다. (김민영, 최현 2015: 67)

“소득과 소비가 줄더라도 안정되고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 유형의 이주의 목표다. 단순히 줄여서 말하면, ‘경제’나 ‘생계’, ‘돈벌이’를 위한 악착 같은 생활이 아니라,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유가 ‘문화’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문화이주’ 대신, ‘문화예술 정착’이라고 구체적으로 범주화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렇게 세분화된 용어를 쓸 경우, 2010년대 제주이주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2010년대 초반의 문화예술인 이주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지 않는 수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불러일으켰던 반향과 비예술종사자 청년들의 이주동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문화이주’ 개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두 편의 연구는 이광준이 2015년 문화과학에 발표한 ‘예술가들이 제주도로 간 까닭은?’과, 김동현이 2017년 45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제주이주의 역사와 문화’에 발표한 프로시딩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 -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이다. 먼저 이광준은 국내 저자로서는 (아마도) 유일하게 ‘문화이주’에 대한 정의를 다음처럼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귀농귀촌이주의 부상 경향과, 생산주의, 성과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피로감을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길게 인용하였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10년간의 귀농귀촌은 경제적 이유와 전원적 낭만주의가 결합했던 흐름이나 생태귀농의 가치지향적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2007년 후반~2008년은 귀농귀촌의 중요한 흐름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문화귀촌이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미국의 월가에서 촉발된 전세계 금융위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대출을 통해 주식과 아파트와 토지에 투자해서 부를 늘려가던 중장년층 부동산 불패신화의 붕괴를 가져왔다. 성장의 둔화, 불평등 구조의 심화, 전반적인

고용불안이 가속화되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의 확장은 둔화되었다. 하지만 대규모 토목개발 사업들로 점철된 정부의 정책은 양질의 직장 창출과 복지를 염두에 두지 않아 고용은 줄어 들고 그 결과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이나 휴식을 인정하지 않는 산업구조로 건강을 잃은 50~60대, 조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일찌감치 귀농귀촌을 결심한 30~40대들이 금융 위기를 거치고 비정규직 노동 상황과 양극화 사회구조가 고정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믿고 따르던 시스템에 대해 물음표를 달기 시작한다. 1등이 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사회구조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삶의 질을 최상위 우선순위에 놓게 된다. 국내에서 80~90년대에 일어났던 초기 귀농귀촌 붐과 1997년의 귀농귀촌의 흐름과 2007년 이후로 나타나는 귀촌과 이주의 붐이 보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낭만 이주, 문화이주의 성격 차이이다. 자연에 대한 낭만과 전원에서의 노후를 꿈꾸는 이주가 스스로 땅을 일구고 살면서 명령이나 지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선택이라는 면에서 개별성이 강하다면, 자본주의의 꽃인 금융자본주의의 허상을 목격한 2007년 이후의 흐름은 직업/결혼/소비/노후 준비라는 인생 주기와 다른 새로운 인생 주기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낭만이주와는 다른 가치적 측면에서 출발해서 노동을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려는 실험으로 문화이주나 생태문화이주에 가깝다. 근대적인 산업화 방식의 한계, 속도 경쟁의 한계와 피로감, 생산력만 증대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거부와 저항’, 충분히 학업을 마친 뒤 GNP를 높이는 노동이 아니라 행복지수를 높이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결정으로 도시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도시에서 텃밭 하나 없는 상자 집/작은 집에 몸을 맞춰서 살아야 하고, 산과 바다로 가려면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달려야 하고, 주말에 인근 야산이나 한강에 나들이 가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나온 너무 많은 사람들에 부딪쳐 지치게 되는 현실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 공간의 답답함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지역 소도시로, 농산어촌으로의 이주를 선택한다. 농산어촌에서 도시로 갔다가 다시 농산어촌으로 돌아와 농업, 임업, 수산업을 재발견하거나 소도시나 시골에서 교사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을 귀농귀촌이라고 한다면, ‘문화이주’는 직접적인 생산경제와는 다른 교육, 문화예술, 환경 등 문화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역방향 이주이다. ‘문화이주’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넓은 의미의 문화 영역에서 일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화귀촌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도시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종사하다가 농산어촌으로 가서 문화적 영역(문화예술, 교육, 환경……)에서 일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주하여 직접적으로 문화적 영역의 일이나 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2015: 178)

여기서 문화이주는 2000년대 후반, 경쟁과 성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온 한국사

회가 더 이상 개인들의 꿈과 비전,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되면서, 개인들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도시를 떠나는 행위이다. 그 구체적 정의는 “직접적인 생산경제와는 다른 교육, 문화예술, 환경 등 문화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역방향 이주”인데, 어쩌서 개인들이 ‘문화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지’가 더 드러났더라면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김동현(2017)은 ‘문화이주’라는 용어가 ‘문화예술인들의 이주’로 국한되어 설명될 수 없으며, “무한경쟁 사회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추구”를 수반하고 있고, 동시에 “문화 이주라는 용어의 사용이 이주민 증가로 인한 제주 문화의 정체성 훼손 혹은 왜곡에 대한 대항적 담론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7:115-117) 글의 결론부에서 저자는 ‘문화이주’가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의 이주’가 아닌, 삶의 방식 또는 라이프스타일, 삶의 가치 지향변화를 수반하는 더 근원적인 현상임을 온당히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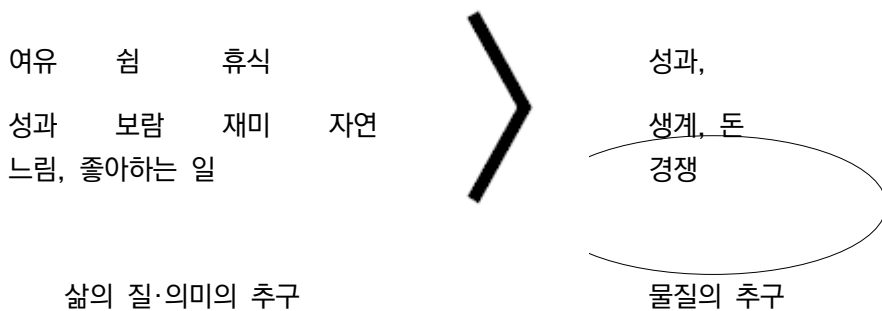
앞서 제주 이주가 도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라이프리셋을 추구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이주, 문화이주자들의 삶의 태도는 제주 내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볼수 있다. 개발과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제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지대로서 문화이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이주는 ‘이주’라는 형식에만 집중해왔다. 문화예술인 이주자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새로운 문화 향유와 매개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지금-여기 제주가 지향해야 하는 문화적 가치는 외면해 왔다. 제주 공동체적 질서를 위협하는 문화의 이질성을 통합의 관점에서 문화이주를 상대화한 측면이 많다.

한편 아그네스 조던은 2019년 발표한 제주이주에 관한 인류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2007년 올레길 개소가 한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제주 농촌공간의 미적 가치와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던은 제주이주를 IMF 경제위기 이후, 유연화된 노동시장 및 중산층 내부의 계층화 현상 속에서 ‘계급적 하강이동’을 경험하던 중산층 밀레니얼 세대가, 제주에서 대안적 삶을 모색하고 새로운 삶의 장소를 창조하기 위한 (“place-making”) 주체적 탈주(engaged exodus)로 규정한다. (2019: 76). 그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낙후되고 공동화되었던 제주 농촌지역이 대안적 삶을 꿈꾸던 청년층의 새로운 삶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던은 ‘문화이주’라는 표현 대신, ‘제주이주’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있다.

1-2. 문화이주의 정의

앞절에서 살펴본 대안적 삶의 추구이자 귀촌이주로서 ‘문화이주’의 설명에 등장하는 의미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문화이주’ 용어의 의미망 분석

여기서 ‘문화이주’는 전세계 이주현상의 매우 중요한 동기를 차지하는 경제이주, 즉 생계나 직장을 위한 이주와 변별된다. 따라서 ‘문화이주’에서의 ‘문화’는 생계와 생업,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모든 현실적인 근심사를 포괄하는 의미의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이주자들에게 생계나 생업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제 1의 이주동기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지역 상생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물질적인 것들 이외의 것들, 정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서울이나 이런 곳이 갖지 못한 못한 제주도만의 원가에 끌리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전히 비즈니스 기회만으로는 아무리 봐도 제주도보다는 서울이 기회가 더 많잖아요.

(50대 이주민, 제주 거주)

이 점에서 ‘문화이주’는 2000년대 후반, 사회학계에서 개념화된 라이프스타일 이주(Lifestyle Migration)의 성격을 갖는다. 미카엘라 벤슨Michaela Benson과 카렌 오레일리Karen O'Reilly는 2009년에 발표된 선구적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이주를 다음처럼 정의하였다.

[...] lifestyle migration is about escape, escape from somewhere and something, while simultaneously an escape to self-fulfilment and a new life – a recreation, restoration or rediscovery of oneself, of personal potential or of one's 'true' desires. (2009b: 3)

라이프스타일 이주는 어떤 장소 또는 대상으로부터의 떠남인데, 자기실현과 새로운 삶 – 여가, 자신과 개인적 잠재성, 또는 ‘진정한’ 욕망의 회복 또는 재발견 –을 위한 떠남이다.

As we perceive it, lifestyle migrants are relatively affluent individuals of all ages, moving either part-time or full-time to places that, for various reasons, signify, for the migrant, a better quality of life. (2009a: 2)

라이프스타일 이주민은 모든 연령대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개인들로서, 일시적 체류든 온전한 거주든,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의미하는 장소들로 이주하는 이들을 말한다.

즉, 라이프스타일 이주는 생계나 직업, 경제를 위한 이주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의 재구성, 자기실현을 위한 이주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더 의미 있어야(“more meaningful”)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2010년대 초반의 ‘문화이주’는 라이프스타일 이주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이주 개념과, 앞절에서 소개한 ‘문화이주’에 대한 여러 특성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문화이주’ 정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경쟁·성과 중심의 도시생활과 신자유주의적 노동조건 하에서 경험한 무의미에 대한 반발로서, 넓은 의미의 ‘문화’활동을 통해 대안적 삶을 모색하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이주

이 정의는 기존의 ‘문화이주’ 연구나 기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나, 정확하게 규정된 적이 없는 ‘의미’의 문제를 2010년대 제주이주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 2010년대 후반의 라이프스타일 이주도, 사실은 이러한 ‘문화이주’의 한 양상이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는 2010년대 초반의 문화이주를 “의미 추구형 이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실존적 고민으로서 ‘의미 추구’를 ‘문화이주’ 개념에 포함시키고 나서 ‘문화’의 뜻을 다시 살펴보면, 여기서의 ‘문화’는 노동과 도시살이의 ‘무의미’에 맞서, 보람, 재미, 행복 등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하는 폭넓은 행위를 지칭한다. 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의 창작, 창조활동이 이주민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0년대 제주로 건너왔던 청년 이주민들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했건 아니건 간에, 무언가를 만들고, 타인들과 교류하고,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임들을 조직하는 데 매우 큰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노래를 짓고 책을 쓰고 공방을 열고 뜨개질을 하고 마을해변의 쓰레기를 줍고 집 담벼락을 아름답게 꾸미고 때로는 살고 있는 마을 구역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인구 천만 명이 넘는 서울이라는 곳이었고. [...]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인간 관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일 중심, 소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가치 중심이나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죠). 내가 정말 이것 좋아하나.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삶의 방식을 좋아하나.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쉼이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40대 이주민, 서귀포시 거주)

(연구자: (제주 와서) 뭐가 제일 크게 변했나요?) [...] 여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죠. 서울서 광고회사 다닐 때는 [...] 매너리즘이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세상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뭔가 쳇바퀴 돌듯이 일하고 퇴근하고 술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맨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40대 이주민, 제주시 거주)

이렇게 본다면 2010년대 제주이주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적 구조조정이 낳은 무한경쟁과 만연한 불확실성 속에서, 30-40대 청년 세대의 존재의 의미 찾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이주는 남한 사회를 비쳐주는 거울 같은 것인데, 김동현은 2017년도에, 제주이주가 가지고 있는 대안적 가치 추구를 지적하고, 그것을 자본주의적, 도시적 삶의 양식에 대한 반성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이주자들을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은 타자로 인식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관리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인식이 또 다른 배타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이주라는 용어는 제주 이주현상을 설명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이주 현상에 담겨 있는 대안적 삶의 가치를 제주 사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제주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7: 117-118)

문화이주민들은 벼룩시장을 조직하고, 핸드메이드 샵과 공방, 책방을 운영하고, 작은 콘서트나 독서모임, 전시회 등 소소한 문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했다. 이주민들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졌던 이유는 그 활동들이 바로 이주민들의 ‘의미-짓기’ 또는 ‘의미-찾기’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이주의 여러 특성들은 아래에 소개된 두 문화이주민의 개인사와 이주 서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3. 문화이주민의 두 가지 사례⁶⁾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기 소개하는 이주민들의 거주지역이나 개인사의 세부내용 등은 연구자가 대폭 수정, 축소하였다. 이주민들의 개인사는 원래 상세하게 기술하려고 했으나,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지금도 제주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인임을 감안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삭제했다. 그렇지만 ‘문화이주’와 제주형 ‘라이프스타일 이주’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1. 한림 굴농부 K씨

한림에 거주하는 굴 농부 K씨는 40대로서 제주이주 열풍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09년에 제주로 이주했다. 현재는 굴밭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지역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한다. 가족은 아내와 딸이 있다.

K씨는 부산에서 태어나 지방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제주로 내려오기 전, 서울의 한 공공 박물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다.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일은 좋았지만, 2008년 갑자기 조직이 개편되고 박물관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K씨의 부서가 사라졌다. K씨는 당시 박물관의 직속 상사와 관계가 좋았는데, 상사도 그를 위해 해줄수 있는 게 없었다. 결국 K씨는 직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제주에 “바람을 쐬러” 왔다가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다.

K씨는 스스로를 제주이주민 “1세대”라고 칭한다. 당시는 제주에 게스트하우스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 당시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처음 내려와서 거쳐간 게스트하우스에 따라 “무슨 무슨 파”라 부르기도 했다. 그의 제주 이주동기는 “서울이 싫어서”였다.

지금 제주도 지금 이주하는 사람들이랑 저희 때 이주했던 사람들이랑은 전혀 달라요. 그 때는 정말 서울이 싫어서 온 사람들이 태반이죠. 지금 오는 사람은 제주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야. 다르죠. 저희는 제주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서울이 싫어서. [...] 돌아다녀보고 뭘 했는데 그나마 제주가 낫다인 거지. 나 여기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었고. 다들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항장애나 우울증이나 대인기피나 이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중에 또 예술가들도 되게 많아. 그러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모이면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이런 게 다 했는데 지금 오는 사람들은... [...] 그때는 제주분들도 “수리해서 살아” 이런 집들 되게 많았어. 연세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살아 이랬으니까 뭐 없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2008년 리먼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2008년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들은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예산 긴축을 불러왔고, 이는 당시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 2010년 경 제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내러티브에는 그 무렵의 실직이나 어려움에 대한 기억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K씨 역시 대통령이 바뀐 이후 전통문화와 관련된 일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매우 떨어졌던 때를 다음처럼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와 이명박 들어섰을 때. 제가 알바를 그때 다했었어요. 이게 체감이 딱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알바가 다 건설 쪽이고. 점점 열악해지고 삶의 질이. 그러가지고 그때 막 이명박 씨가 뭐 명박산성 쌓고 하는 거 보고 [...] 이게 행복한가.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주 내려와서) 처음 1년은 걸터다녔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한라산 가고. 한 육십 번 넘게 갔다 왔어.

치열하다는 말은 약간 전투적인 느낌. 저희 세대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야. (우리 세대는) 풍요롭지만 스트레스 많은 세대에요. [...] 최근에 읽었던 거 중에 제일 공감이 가는 게 아니 칼럼이었나? 라디오였나? 지금 세대는 고생은 안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세대래요. 예전보다는 편해졌잖아요. 육체 노동 안 해도 되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잖아. 니들은 고생을 덜 한다고. 아 우리가 무슨 고생을 덜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풍요롭지만 스트레스 많은 세대”인 K씨는 제주에 정착 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악기 연주, 책 읽기, 글쓰기, 등산 등이며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원고를 쓰고 있다. 그의 가족 중에는 음악과 미술 등 예술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여럿 있고, 그 역시 한때는 미대를 꿈꾸었지만 실기에서 탈락해 4년제 대학을 가지 못했다. 그림에 대한 꿈은 여전히 가지고 살았지만 2008년 이후, 그 꿈을 완전히 접고 제주에 내려왔다.

제주 정착 후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1세대” 이주민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녹색당을 지지하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운동권 친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가 알던 1세대 이주민들 중 절반 이상은 서울로 올라가고, K씨가 보기에 이제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투철한 이주민들이 제주로 내려온다.

그 당시에 연세 한 100만 원도 안 했던 그런 집들이 지금 700-800만 원을 줘야 1년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부동산이 엄청 뛰었으니까 그렇게 부동산이 막 뛰면서. 이제 그 예술가들이 여기서 식당을 하고 카페를 하고 다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주인이 뺏어 가는 거죠. [...] 그래서 다들 어디로 가게 됐냐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전라남도. 일단은 제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쪽 남쪽으로. [...] 여기서 1년 빌릴 돈이면 거기서 창고를 하나 살 수 있단 말이야. 그쪽은 아직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귀촌을 한 번 해봤으니까. 이제는 지금 제주도 오는 사람들처럼 제주에서 글로 가서 그래도 이만큼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는 쫓겨나는 게 싫으니까 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 지금도 경조사 있어서 가보면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정말 그들의, 이 뭐야, 장사를 되게 잘해야지가 아니라 아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내 공간이 생겼으니까 예쁘게 꾸며야지. 그 당시 약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예뻐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내려오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발현인 거지. [...] 처음에 그냥 순수하게 내려와서 좀 살 만한 공간을 꾸미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해서. 그런 순수한 정말 청년 집단들이 (있던 거죠).

2. 표선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L씨

표선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L씨는 40대 후반으로 2009년에 제주로 이주했다. 게스트하우스 외에도 농산품을 재배, 판매하는 농업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는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기농 먹거리를 유통하는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다 30대 초반에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갖고 싶어서 제주로 왔다. 당시에는 서울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다. 정착 초기에 아이가 태어나 어려움도 컸지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제주인들이 도움을 주어 무사히 제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 관광업이나 상업에만 종사하는 이주민들보다 농업을 병행하는 이주민들은 제주인들과 교류도 잦고,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정착되는 경향이 있는데, L씨도 그런 경우다. K씨와 마찬가지로, L씨의 이주서사에도 2008년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어려워진 경제적 현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이제 저는 고학번인데 그 세대가 어쨌든 97년 경제 위기가 왔고. 97년에 이제 졸업을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95년 96년만 해도 원서만 내면 기업에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97년 이후에 졸업한 사람들이 대거 직장을 갖지 못하고 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렇게 간 사람들이 그 이후로도 보면 어쨌든 법적으로 노동 유연화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 뭐 기업들도 사람을 많이 뽑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죠. [...] 저는 이제 NGO 쪽에서 일을 했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 이런 걸로 (시민들이) 시위나가고 할 때 저희 대표님도 거의 구속이 뒀죠.

그가 제주로 왔던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가 청년들의 새로운 삶의 장소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래서 L씨는 정착 초기에 잠시,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아닌

가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 감정은 제주이주 “열풍”이나, 제주살이에 대한 언론의 낭만적 재현이 부재했던 시절에 정착한, 초기 이주민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보여진다. 새로운 삶의 장소로서 “로컬”이나, 로컬에서의 라이프스타일 담론이 확산된 2010년대 후반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경우, 서울에서 떠나왔다는 어떤 열등감, 또는 열패감의 감정이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다.

뭔가 이제 지방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중심부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게 (서울에) 정착을 했고. 근데 그게 (2008년 이후의 상황 때문에) 쉽지 않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제가 아는 회사 동기, 그 동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으로 가보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느낌이 왠지 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순간에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생각했었고, 그렇게 해서 중심부에 왔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어쨌든 다시 주변부로 밀려난다라고 하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랬던 복잡한 감정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왜 어떤 일들이 그동안 20대 때 있었던 걸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삶을 한번, 어찌 보면 밀려난 인생일 수도 있는 부분 이긴 하겠지만 삶을 한번 주도적으로 좀 변화시켜보자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 이명박 정부의 그 상황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위축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돌아켜보면 30대 초반에 지금까지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지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좀 내가 도태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한국을 뜨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 한국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되게 컸었고. 그런데 이제 실제 한국을 벗어나자니 또 그것도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그걸 때 제주라고 하는 곳이 갖게 되는 매력은 어쨌든 서울에서 제일 먼 곳이기도 하고.

L씨는 2008년 재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부업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러다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는데, 그 삶의 내용은 “주도적인 삶”이었다. 바꿔 말하면, 그 이전의 삶이 자기답지 못하고, 재미와 보람, 의미가 부재하는 삶이라는 뜻도 된다. L씨가 제주에서 추구한 “주도적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도적인 시간사용이었다.

이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쓰는 게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이제 잡(job)을,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네 다섯 개의 잡을 선택하더라도 안정적이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몸이 매여가

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바쁘고, 이동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주에서 살아보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삶을 움직이는 이게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차가,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가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쪽 이렇게 가는 것처럼, 원하는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삶에 좀 더 적극성이 생기는 부분이... [...] 시간적으로 남으니까 저녁에 뭐 책을 본다든지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그때 글을 좀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가 한참 이제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어 가지고 그게 삶을 좀 많이 바꿔놨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냥 섬으로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소셜 미디어) 통해서 오히려 연결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제주이주열풍’ 이후의 개발피로감에 대해 언급한 후에, 이주민들이 제주에 어떤 효과를 가져온 것 같냐는 질문에 L씨는 다양성이라고 대답했다.

그냥 다양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다양하다는 게, 근데 이게 공동체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안 좋게 느껴지는 게 맞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단일화된 사회에서 이질적인 게 들어오면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어요. 우리끼리 살기 편했는데 우리는 100개의 직업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회였는데 왜 천 가지의 욕구들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자식들은, 본인은 100개로 만족하지만 자식들은 더 많은 욕구를 원할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들은 500개, 1천개 가질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는 100개만 유지를 해야 돼? 나 천개 있는 곳으로 갈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 (제주가) 완전히 너무 전통적인 사회도 아니고, 또 너무 익명화된 사회도 아니고 그 중간, 약간 지금이 딱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도시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도시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시골적인 정서를 느끼려면 시골적인 자연도 가까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제주 정착 후, 그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앞서 ‘문화이주’ 연구들에서 소개했듯, 지나친 성과와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적 양식에 대한 비판과 거리두기였다. 이주민이었던 그에게 이 점에서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이 제주사회였다. L씨는 제주 지역사회를 “아직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지역의 큰 장점은 일단은 커뮤니티가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섬 지

역이고 (누구나) 어느 초중고 대학교 하나씩 걸쳐 있는 상황이니까. 켄당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고, 그 네트워크가 지역 사람들에게 주는 안정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부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시장주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사회에 발 붙이면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20대들이 올라가는데 인간적인 연결망이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졌어. 당장에 이제 벌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굶어 죽거나 고독사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에서, 뭔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어쨌든 이 지역 사회에서 연결이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데들은 거울에는 굴이라도 따고 그다음에 봄에는 고사리라도 꺾고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구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돌볼 수 있는 커뮤니티의 문제일거예요.

[...]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 의례회관이라든지 모든 공적인 게 다 되어 있어요. 의례회관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식에서도 하겠지만 마을 단위로 그런 게 있는 거죠. 의례회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같이 모여서 식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식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모이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다 만족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 이런 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외부에서 그런 순수하게 어떤 막 이익 논리나 이런 것만으로 제주에 이렇게 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지되고 있다, 저지라기보다 “먹튀”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정리하면, 두 문화이주민 사례는 2010년대 초반의 문화이주가 ‘자기다운 삶’과 의미의 추구, 더 나은 삶의 질을 목표로 한 라이프스타일 이주(lifestyle migration)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그 이주는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고용시장과 노동현실 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시작한 2000년대 말, 과도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도시생활에서 허무와 실망감을 느낀 20-30대 세대의 대안적 삶의 추구였다. 다음 장에서는 2010년대 중반에 일어난 제주이주의 경향변화를 살펴보고, 문화이주가 꿈꾸었던 대안적 가치들이 ‘라이프스타일’ 담론과 결합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010년대 후반의 라이프스타일 이주

2-1. 2010년대 중반 제주이주의 경향변화

연구자의 현지조사와 문헌연구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무렵, 제주이주의 지향성은 ‘문화’에서 ‘라이프스타일’로 바뀌게 된다. 이 이주경향의 변화는 제주 이주민과 해안마을에서의 현지조사와 참여관찰, 언론기사 분석, 선행연구 분석 등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이주민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경제수준, 정착 이전과 이후의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인데, 그러한 연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이주경향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에 주목하고자 한다.

- 1) 2010년대 중반 무렵, 주택임대료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2010년대 초반 정착한 ‘문화이주민’의 상당수가 육지로 되돌아가는 역이주의 발생.
- 2)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 ‘문화이주’ 담론의 소멸
- 3) 월정, 대평 등 몇몇 마을에서 관찰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 4) 2010년대 초반과 후반 정착한 이주민 특성의 변화

1) 앞장에서 소개한 문화이주민 L씨의 증언처럼, 2010년 초반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2010년 초반만 해도 제주 읍면 지역의 주택이나 방 임대료가 매우 저렴했다고 말한다. 연세 100~150만원으로 시골 지역의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리는 것도 가능했고, 주인에 따라서는 무료로 집을 빌려주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당시 제주로 내려왔던 문화이주민들은 꼭 토지나 부동산을 직접 구입해서 제주에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다. 연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료도 저렴했고, 2010년 초반부터 제주 전역에 생겨나기 시작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다른 이주민들과 교류하고 제주 정착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향적 측면에서도, 문화이주에는 서울로 상징되는 한국의 지배적 노동질서와 사회관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대안적, 급진적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에, 정착보다는 떠돌과 유랑, 일시적 체류를 선호했던 듯도 하다.

2009년 서귀포 근처로 이주해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운영하는 P씨 (40대), 2011년 제주 구도심으로 이주해 복합예술공간을 운영했던 K씨(30대), 2008년 남원 근처로 이주해 유기농 농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한 L씨 (50대), 2013년 서귀포로 이주해 IT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M씨 (30대) 등의 증언에 따르면, 2011-2012년까지만 해도 제주 해안지역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가는 높지 않았지만 땅을 직접 구매해서 정착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2021-2022년 연구자가 성산읍, 대정읍에서 만난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2010년대 초반에 헐값에 제주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여 카페나 숙소를 운영했다가, 자산가치가 오르자 큰 돈을 받고 판 다음 제주를 떠난 “전설적” 이주민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소수의 예외가 대부분의 ‘문화이주민’들의 현실을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즘 이주민들은) 약간 기회를 보고 오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제주도 내려온지 11년 됐거든요. 그 이주열풍 시작 전에, 거의 시작 전에 왔다가 이제 꺼지고 그런 거를 지금 다 봐 왔는데 너무 이제는 진짜 다른 거 같아요. 돈이 있어야지만 내려올 수 있고. 그때는 저같이 돈 없는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고. [...] 이제 2-3천 (만원). 직장,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 뭐 하면 2-3천 들고 와서 그때는 2-3천이었어도 충분히 바닷가 앞에서 또 땅을 살 수가 있었고 그랬으니깐. 이게 순식간에 오른 거야 지금은. [...]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동네 이주민들이랑) 모여 가지고 놀면은, 여행 이야기하고, 진짜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하고, 막 네 꿈은 뭐냐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야 누구 그거 땅 있었대, 팔았대, 얼마 받았대, 누구도 매출이 얼마 진짜 이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 이제 감성 쫓아서 왔다가는 딱 굶어죽기 좋으니깐.

(성산읍 이주민, 카페 운영자, 40대 여성)

지금은 문화이주라고 부르기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주도가 무지하게 개발됐어요. 무지하게 개발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30대가 제일 많았어요. 20대도 많았고 40대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30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만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기도 많이 움직이죠. 근데 자기랑 자기 옆에 또 한 명이 있죠. 와이프든 남편이든 그리고 애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막 팍팍 늘어요. 제주도가 그때만 해도 땅값이 싸니까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산읍 이주민, 협동조합 운영자, 40대 남성)

그때 당시에 이쪽은(구좌읍의 한 해안마을)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15년, 16년까지만 해도 여기 국수가 3천원 했어요. (연구자: 그럼 이게 정말 몇 년 사이에?) 네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초반에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지내셨던 분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게 했던 사람들 중에 안 좋은 케이스는 털고 나가는 사람, 자기 거 깎아 먹고. (연구자: 사업이 안 돼서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9년 전에 왔을 때부터 쪽 여기 동네 사람들을 다 봤는데 그렇게 할랑 할랑하게 하셨던 분들은 이 동네에 계신 분이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은 타이트하게 엄청 오래 한다거나 그렇게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조그만한 동네에도 카페가 30개가 넘거든요.

(구좌읍 이주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50대)

(한림 살다가) 그 뒤에 사실은 한 번 더 이사를 갔어요. 집주인이 쫓아냈는데 당장 갈 데가 없어서 협재로 이사를 갔는데 아무튼 그 건물도 1년 만에 팔린 거예요. 내내 안 팔리다가 제가 들어가고 1년 만에 팔렸어요. (연구자: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제주 집값 오르고 약간 투기 붐이 일고 그런 거랑 맞물려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그때는 이게 심해져서 주변에 한두 명씩은 다들 집주인한테 황포를 당하고 있고. [...] 싸게 빌려줬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연세를 엄청 올리시다가. 처음에 워낙 싸게 줬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갑자기 두 배 세 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 보통 제주 집들이 많이 낡았잖아요. 낡은 걸 고치고 뚫어서 되게 애정을 가지고 만든 공간에서 옮기는 건 또 싫으니까 다들 웬만하면 금액을 올려주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임대료가 형성된 것 같아요.

한림읍 이주민, 공방 운영자, 40대 여성

주택 임대료와 땅값 상승으로 더 이상 저렴한 연세나 월세로 생활을 해 나가기 힘들어진 1세대 이주민들은 2010년 중반 무렵 제주를 떠나,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여전히 낮았던 장흥, 고흥, 남해, 지리산 등지로 역이주를 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 제주로의 전입인구뿐 아니라, 전출인구도 매년 2만명 이상 꾸준히 유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주로 왔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간 역이주민에 대한 심층 면담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두 번째로,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 ‘문화이주’ 담론이 서서히 사라졌다. 빅데이터 검색(Bigkinds.or.kr)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문화이주”를 언급한 신문기사는 총 42건인데 2014년에 17건, 2015년에 7건, 2016년에 3건, 2017년에 6건, 그 이후로는 3건이 쓰여졌다. 2017년 이후로는 ‘문화이주’라는 용어가 한국의 담론장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제주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문화이주’가 태동했던 시기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사라졌고 따라서 경제와 생계, 현실적 조건이 아닌, 삶의 의미와 보람에 방점을 둔 ‘문화’이주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2010년대 초반의 ‘문화이주’는 비인간적 노동조건과 무의미한 도시살이에 대한 반발로서, 제주에서 재미, 보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 주요 동기였다. 그런데 제주도가 매력적인 관광지이자 거주지로 부각되면서, 토지와 부동산 가격, 주택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고, 30-40대 이주민들이 ‘경제’를 잊고 ‘문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10년대 초반의 이주민들이 제주로 오면서 품었던 꿈과 환상, 유토피아적 전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2012년, 꿈의지도에서 출간된 기락의 “거침없이 제주 이민”이라는 책을 들 수 있다. “제주 이주자 15인 행복인터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소개글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한번쯤 살아봤으면 좋겠다.’ 제주 여행자의 하나같은 바람이다. 그 바람을 실천에 옮겨 과감한 육지탈출로 제주에서 행복 찾은 15인의 거침없고 생생한 제주 정착기. 제주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부터 제주에서 살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거나 스스로 만들고, 아이들 교육 시키는 것까지, 선배 이주자들의 경험담은 끝이 없다. 그들은 제주에서의 삶이 ‘이주’가 아니라 ‘이민’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육지와는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무한 경쟁에서 한발 비켜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자 행복이라 말한다. 이들 제주 이주자들은 ‘육지에서 죽자 살자 견디지 마라. 다른 삶도 있다. 그 다른 삶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 지금 바로 건너오라’고 손짓한다. (기락 2012)

“무한 경쟁에서 한 발 비켜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축복과 행복은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 삶은 제주 물가와 부동산, 주택임대료 등의 전반적 상승이 있기 전, 즉 2015년 이전의 몇 년 동안만 짧게 가능했던 삶이다. 그 후로는 다

시 ‘경제’가 ‘문화’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이주민들이 서울에서 도망치고 싶어했던 사회경제적 구조가 제주에서 재현되게 된다.

예술계에서 활동하던 이주민들 역시, 해가 갈수록 활동의 다양성과 재미가 줄어들고, 높은 물가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초기에 느꼈던 열정과 에너지가 약화되었다.

(여기 예술극장 운영하면서) 그 연차가 지나가면 갈수록 뭔가 다양성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2017년, 2018년 이때는 예전에 우리가 막 재미있게 그렇게 활동하던 그런 느낌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다른 고향으로 돌아가시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있었겠지만 2012년, 13년, 14년, 그때는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었다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거는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일 단편적인 예가 월정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거기서 되게 많이 모여서 놀았거든요. 예술인 친구들이 축제 같은 것도 모여서 하고. 평화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들도 문화예술 이주민들이 오서 가지고 간간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처음부터 지원금이나 공적인 자금이 들어간 행사는 아니었고. 그런 네트워크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사들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정말 제주가 좋아서, 약간 예술 자기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즐겼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원도심 관덕로를 베이스로 활동하는 청년 문화기획자들과 네트워크 프로젝트도 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여기에서 공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자주 나가는 거예요. [...]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그런 명칭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행사를 얼마나 했는지, 관객들은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마을분들과 커뮤니티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약간 이런 가시적인 효과들을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숫자 수치라든가 이런 걸로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제주시 이주민, 문화기획자, 40대 여성)

3) 다음으로 월정, 대평 등 몇몇 마을에서 일어난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 먼저 월정리는 지난 10년 사이 매우 급격한 상업화, 관광화를 겪은 지역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적한 어촌마을이었던 월정리는 하루 수천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곳으로 변했고, 해변가에 있던 마을의 옛 주택들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2층, 3층 규모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섰으며, 주민 7백여 명의 마을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좁은 지역에 개발 수요가 몰리다 보니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2017년 현재 ㎡당 공시지가는 92만 원으로 3년 전인 2014년 8만 원에 비해 11배가 상승하였으며, 이 마을 해변에 해안도로가 개설된 2000년의 공시지가 4만 5,000원에 비하면 무려 20배가 올랐다. [...]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그 근처 카페들과 펜션들이 해변에 가까운 지역에 밀집되면서 이들 상업지역과 토착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주민이 정착한 일대와 지역주민이 생활하던 공간이 분리되는 공간의 분단화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마을공동체 내에서 주민들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한데(이화진 외, 2017), 월정리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염미경 2019: 204-205)

김현영은 월정리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룬 석사논문(2019)에서, ‘도시에 대한 타자’로서 제주가 재발견되는 과정의 전형적 사례로서 월정리를 들며, 지난 10여년간 ‘촌락 젠트리피케이션’과 ‘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이 월정리의 공간을 광범위하게 침윤, 상업화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현영 2019: 13-14). 그 연구는 월정리에 거주하는 실제 인구집단의 유출과 유입, 교체와 변동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순유입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원래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일부 또는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 구역의 개발과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동, 즉 거주하는 인구집단의 교체와 변동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제주에서 단순히 이주민-마을민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2010년대, 월정이나 대평 등지에서 일어났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2010년대 초반에 정착했던 이주민’과 ‘그 이후에 유입된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관찰된다. 초반에 정착했던 이주민들이, 더 큰 경제력과 사업감각, 준비를 해서 제주로 유입된 이주민들로 대체되며, 육지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010년 기점으로 한 5년, 6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내려왔죠. 거기서 또 청년들이 그때 30대 중반이나 한 40대쯤 된 예술가. 거기서(서울) 밀려온 애들이 여기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다가 돈을 벌기도 하고. [...] 그러다가 한 15년쯤, 2015년쯤 (이 마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난하게 있었던 애들이 다 쫓겨났죠. 그 청년들은 거의 다 이제 올라갔죠. 거의 다 올라가고 지금은 많이 안 남아 있

고. 그때 좀 버틴 애들, 그때 버틴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있다고 봐요. 그래 갖고 지금 제 주위에도 지금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고, 옛날 해안가에 있다가 이제 중산간 쪽으로 좀 산 데로 가서 거기서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남고. 마을과 좀 어우러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육지) 올라갔어요.

(대정읍 K 마을 이주민, IT 프리랜서, 40대)

4)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과정을 알려주는 마지막 지표는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제주로 정착한 이주민들의 특성 차이이다. 두 이주민의 가장 큰 차이는 ‘문화’의 힘으로 냉혹한 ‘경제’적 현실, 즉 경쟁과 성과 중심의 비인간적 도시생활에 대한 대안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꿈의 급진성에 있다고 보인다.

2010년대 초반 ‘문화이주’의 경우, 처음에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했던 청년층이, 그리고 후에는 거기에 공감하며 제주로 내려간 비문화예술계 청년들이, 경제적 현실이 일상의 모든 부분을 규제하는 도시살이에서 벗어나, ‘문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 대안을 되찾고자 했다. 적어도 2010년대 초반, 이주민들이 제주에서 추구했던 대안은 1970년대 서구의 히피 운동에서 보여지는 반문화적, 급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2010년대 초반, 제주의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주민 문화는 코스모폴리탄적 분위기, Yolo적 철학, 도시살이의 상처에 대한 위로와 힐링 내러티브 등을 통해 당대 한국사회의 노동과 가족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급진성을 지니고 있었다. (Jordan 2019: 97).

그러나 2010년대 후반이 되면, 2010년대 초반과는 다른 제주이주의 특성들이 관찰된다. 대안적 노동과 생활양식을 위한 사회적 실험들의 수가 줄어들고, 대안적 삶에 대한 열망이 개인화되는 경향이 등장한다. 이주민들의 생업과 삶의 양식도 그 이전 시대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문화’를 통해 행복할 수 있고, 대안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 청년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산과 문화자본, 사회적 지위를 갖춘 이들이 제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 2010년대 후반의 이주의 초점은 ‘문화’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 되는데, ‘제주식 라이프스타일 이주민’으로 부를 수 있을 이 후자의 이주민들의 특성을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제주형 ‘라이프스타일 이주’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2010년대 후반의 제주이주의 특징은 그 대안성의 축이 ‘문화’가 아닌 ‘라이프스타일’로 옮겨갔다는 것인데, 이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에는 혁신에 기반한 기업이 정신이 있다. ‘문화이주’에서는 ‘문화’의 힘으로 ‘경제’의 영역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려 했다면, ‘라이프스타일 이주’에서는 현실의 냉혹성을 무시한 채 Yolo식 행복이나 삶의 여유를 찾을 수는 없음을 자각하고, ‘기업가성’과 ‘혁신’을 통한 대안을 추구하고자 한다.

2010년대 제주도의 ‘문화이주민’과 ‘라이프스타일 이주민’의 구분은 사회계층적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자본은 풍부했으나 경제자본이 부족했고, 비정규직 등 불확실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았다면, 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보유하며, 서울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제주로 이주했고, 제주의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을 도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주식 ‘라이프스타일 이주민’은 기존의 한국사회를 이끌어왔던 물질주의, 생산주의 이념을 넘어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때의 ‘탈물질주의’는 ‘문화’의 힘으로 비인간적 ‘경제’ 현실에 대안을 모색했던 ‘문화이주민’의 탈물질주의가 아닌, 상대적으로 유복한 개인들이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탈물질주의다.

요즘은 이주민, 정착 주민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주도에 이주한 사람한테 붙는 수식어가 문화 이주민인데. 여기도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1세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 때는 제주도 땅값으로 표현하자면은 (1평에) 10만 원도 안 될 때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세대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2세대 정도 돼요. 세대를 구별하자면 2008년 2009년 그 무렵부터 한 2012년 그때까지는 제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삶의 가치 지향적으로 온 사람들.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유토피아를 찾아서, 어떤 이상향을 찾아서 온 그게 2세대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 2015년 이후에 제주도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 비즈니스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열풍이 지나갔어요. 2019년 정도에 제주이주열풍이 이제 가라앉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지금 오는 사람들을 좀 주목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4세대. 지금 오는 사람들은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대정읍 이주민, 책방 운영자, 50대)

올레 만들어지고 처음 막 온 사람들. 1세대 말고. 그러니까는 15년에서 20년 한 7~8년 사이 들어온 애들이 다들 이제 투기꾼으로 들어온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와서 치고 빠진 애들이 꽤 돼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제 땅값이나 집값이 워낙 비싸 노니까. 아예 처음부터 체념을 하고 들어오니까 땅 투기라든지 이런 거 할 거 아니고. 이제 여행 개념으로. 진짜 오리지널 여행 개념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애네들은 마음을 비우는 애들이 많은데. 그 전에 애들은 이제 투기 목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치고 많이 빠졌지.

(남원읍 P 마을 전 이장, 50대)

대기업이나 공장이 거의 없고, 농어업과 관광업에 경제를 크게 의존하는 제주의 산업구조 상, 제주 이주민들은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2010년대 후반의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체,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이를 발굴하고 싶어 한다.

제 브랜드를 만들 때까지 버티고 버텼던 게 있죠. [...]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 친한 (이주민) 선배랑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 진짜 제주도 우리가 좋아서 내려왔지만 우리 이제 좇된 거야 (웃음). 좇된 거야. 여기 진짜 월급 이거 꼴랑 200도 안 주고 이거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서울에서 막 잘 벌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좇됐다고. 괜히 제주도 좋다고 막 이런 거 듣고 어린 마음에 환상 갖고 내려와가지고 망했다.

(한림읍 이주민, 문화기획자, 40대 남성)

모슬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50대 이주민은 2010년대 후반에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들을 “열등감이 없는” “자기취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단계를 지나고 제주도에 지금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어떤 이유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 같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오더라고. (연구자: 그 새로운 가치라는 게 어떤...?) 그게 굉장히 자기 취향적이야. 전에는 어떤 도피 심리 같은 게 있었던 말이에요. 도시에서의 삶이 지쳤든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든 우리 애가 아토피가 걸렸는데 뭐 제주도로 가야겠든. 또 대안적인 사람. 나 같은 경우는 공동체적인 삶을 실현해 봐야겠다. 뭐 이런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 이제 개인적으로, 완전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원하지 않지. [...]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되게 다양하고 좀 내가 봤을 때는 건강하고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여기도 보면 요가하고, 프리다이빙 하고 그런 남자가 살아.

(대정읍 이주민, 책방 운영자, 50대)

이 자기취향적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에는 ‘기업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스스로가 자신과 맞는 관계성 또는 생활원리로서의 기업가성(Foucault 2004: 132)에 대한 논의보다, 여기서는 2004년 DAUM의 제주 이전 이후 혁신적 기업가가 제주이주민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 1세대 인터넷 기업인 다음(Daum)의 제주도 이전은 제주 사회와 이주민 커뮤니티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주도청 및 여러 공공·준공공기관은 DAUM 출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였고, 이들은 제주 전역의 Wi-Fi 네트워크 구축, 공공 및 관광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선도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 수준을 넘어, 제주의 공공 서비스 체계를 ICT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 이 성취는 제주 내 정부기관에 채용된 DAUM 출신 전문가들의 역량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DAUM의 영향 아래, 제주를 스타트업 및 기업가적 혁신의 거점으로 재구성하는데 핵심적 기관이 된 곳이 바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이 센터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따라 전국 17개 지방도시에 설치된 혁신센터 중 하나로, 제주의 경우 인터넷 산업 기반을 가진 DAUM의 자산이 유기적으로 접목될 수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과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 전략이었는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정부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 제주센터는 2018년, 전국 혁신센터 중 최초로 지방정부 출연금을 활용한 직접투자 사업을 시작함. 이를 통해 센터는 단순한 창업지원 기관이 아닌, 투자 기능을 갖춘 공공 액셀러레이터(public accelerator)로 자리매김함.

②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발굴 및 육성: 제주 지역의 잠재된 자원, 문화, 기술을 창의적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컬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산업의 창출 가능

성을 확장하고 있음.

③ 미래 전략 산업 유치 및 기술 기반 생태계 구축: 제주도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센터는 빅데이터·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함. 이러한 산업 유치는 단순한 기업 유입이 아니라, 지역 경제 구조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제주혁신센터의 핵심 사업분야는 “로컬 크리에이터” 및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이노베이션 스쿨’, ‘로컬 브랜딩 스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에 잠재된 가치, 자원, 기술을 활용한 혁신 주체 양성을 추진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공통된 목적이 제주라는 지역 공간에서 활동할 혁신적 기업가의 발굴과 육성에 있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제안되는 ‘라이프스타일’의 윤곽을 이해하기 위해, 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세 번 연임한 전정환의 저서 『밀레니얼의 반격: 라이프스타일 혁신가들이 몰려온다』(2019)는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업가를 중심으로 총 30인의 “라이프스타일 혁신가”를 소개하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성장을 통해 조직에 기여하는 태도
- 취향과 가치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변화를 실천하는 삶의 방식
- “재미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을 지향하는 활동가적 특성
- 서울·강남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로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

한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직한 제주 지역혁신 싱크탱크 협의체CIRI의 2020년 회의에서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2020)의 저자인 모종린 교수는 대안 인재를 키우려면 대안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성공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자질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CIRI 아카이브북

2020: 64)

- 강한 세계관 (자기 자신의 세계관과 라이프스타일 철학)
- 로컬 경제에 대한 이해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능력
-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지역환경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창조성.

그렇다면 여기서의 '라이프스타일'이란 무엇인가? 취향과 가치, 재미와 의미, 대안적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라이프스타일은 '문화이주민'이 꿈꾸었던 삶의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새롭게 추가된 요소가 있으니 바로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적 혁신' 능력이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담론과 제주혁신센터의 혁신생태계 조성 노력은 2010년대 후반의 제주이주 지형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그 과정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주민의 새로운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10년대 후반의 제주이주 담론은 기업가적 혁신에 기초한 '라이프스타일 이주'를 그 핵심으로 삼는다. 이는 사실 문화이주의 꿈과 비전을 '기업가적 혁신'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2010년대 제주이주의 경향이 '문화이주'에서 제주식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변모해갔다고 파악하며, 후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잠정적 정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제주식 라이프스타일 이주란 다음의 성격을 갖는다.

보람과 재미, 의미의 추구라는 문화이주의 꿈과 비전을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주

어떤 의미에서 '문화이주민'들이 지니고 있던 창조성과 자기표현, 대안적 삶에 대한 욕구가, 2010년대 후반에는 기업가 정신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로 프레임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제주 이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제주를 문화적,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게 만들었고, 동시에 지역경관을 아주 매력적으로 탈바꿈해 제주를 살고 싶은 장소로 바꾸었다. 그들의 사업 감각과 창조성, 미적 감각이

제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끝으로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이 갖는 근원적 양가성을 언급하고 이번 장을 마무리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게임의 룰을 충실히 따르면서, 동시에 그 질서를 안으로부터 끊임없이 갱신하려는 급진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안에서부터 내파하려는 움직임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원리에 기반해 있는 생활양식이다.

혁신과 도시재생은 긍정적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이주민의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본질적으로 스타트업 창업가, 즉 기업가이다.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기업가성(entrepreneurality)의 원리 위에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새로운 합리성이라 할 수 있다면 (Laval & Dardot 2009), 개인의 주체성이나 (“개인의 기업가-되기”) 기업 운영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전통적으로 ‘기업’ 원리와는 결부되지 않았던 공동체, 가령 마을 (“마을-기업”) 까지도 ‘기업가’ 원리에 따라 재편하려는 이 원리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강력한 이념, 즉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것이다.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명암에 대한 가치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기업가-되기’ 또는 ‘기업 혁신’이 강한 양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만 언급해 두려 한다. 이제 두 명의 라이프스타일 이주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라이프스타일 이주민 2인의 사례

1) 북호텔 운영자 H씨

H씨는 40대로 2017년 아내와 함께 서귀포시로 이주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2017년, 서귀포의 한 예술가 레지던시에 1년간 초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제주이주 동기는 “고속도로에서는 누구나 빨리 달려야 하는 것처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경쟁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었던 생활이 싫어졌기 때문이다.

처음 제주에 도착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폭 쉬고 싶었다는 H씨는, 석 달쯤 지나니

7) ‘문화이주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기 소개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에서 거주지역이나 개인사의 세부내용 등은 연구자가 대폭 수정, 축소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지금도 제주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인임을 감안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삭제했다. 그렇지만 제주형 ‘라이프스타일 이주’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무료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게 젊은 시절 잠시 출판사에서 근무했고 책을 좋아했던 그는 제주에 여행왔을 때 경험한 게스트하우스를 본떠 2018년, 서귀포시 외곽에 4층짜리 북호텔을 열었다.

그에게 게스트하우스는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며칠 왔다가 쉬면서,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제주를 여행하고, 휴식하는 곳이었다. 그가 보기에 최근 제주의 게스트하우스는 ‘휴식’과 ‘쉼’이라는 처음의 성격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 현대식 개인 룸이 있는 호텔 건물에 큰 Book 공간과 카페, 무료로 읽고 반납할 수 있는 책들을 비치한 북호텔을 기획하게 되었다. 처음 2년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발발하고 국내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호텔 운영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현재 호텔에는 2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요가와 명상센터도 추가 개소할 생각이다. 그는 제주 정착 후 급여성활자에서 자영업자 또는 기업가로 변신하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제가 사실 회사를 다녔던 거는 이제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저는 그 월급이라는 게 저에게 사실 되게 독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독이었던 것 같아요. 월급이라는 게 그냥 매월 적당량이 들어오니까 내가 열심히 하든 좀 대충 하든 그만 큼은 항상 보장이 된 금액이니까, 저한테는 독이었어요. 확실히 내가 퇴사를 해 보고 아주 그냥 구멍 가게지만 내 일을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없잖아요. 0부터 10까지를 제가 다 하면서 배운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사실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되게 미루기 좋아하고 오늘의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게 좀 변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요는 뭐냐면, 제가 회사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월급 받지만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반면에는 제가 이제 그냥 소모품이라고 느꼈던 감정들도 있어요. 이제 매월 그냥 월급 받으면서 회사에서는 그냥 나를 고용해서, 그냥 내가 할 만한 적당한 일을 주고, 내가 성장이나 발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 이제 3년을 일하면서, 그냥 되게 소모적인 3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배운 거랑 3년 동안 회사에서 배운 거랑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잔 소리가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돈을 많이 주려고 해요.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을 수준 안에서, 직원들 급여를 많이 주려고 해요. [...]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포지션들을 주고 싶어요.

2010년대 초반의 문화이주민 역시 대부분 급여생활자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했다. 그러나 스스로가 사업가 또는 기업가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진 개인들이 제주를 찾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H씨 역시 대도시의 생활이 주는 피로감, 직장에서의 실망감 등을 경험했지만 단순히 느리게 살기 위해서 제주에 온 것은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주의 자연을 즐기면서 무위도식하는 일도 무료한 일이었다.

그는 꼭 제주에 정착해서 머물겠다는 마음은 없으며, 다른 계기가 생기면 언제든 육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북호텔 운영이 무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주의 자연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가 너무 좋아 다시 서울에서 살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의미에서 2010년대 후반의 라이프스타일 이주민들은 더 이상 확고한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주migration가 아니라, 이동성 또는 모빌리티mobility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대상들이기도 하다. 제주가 서울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을 주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궤적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구체적 장소라기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의 쉼없는 이동이기 때문이다.

2) 유기농 식품기업 대표 S씨

S씨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제주시에서 유기농 식품기업을 운영한다. 20대에 약 10여년간 해외에서 생활했고, 서른 넘어 남편과 자식들과 제주에 정착했다. S씨의 식품기업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제주산 농산품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유제품, 간식, 과자 등을 만든다. 그 기업은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가 모두 한 가족이라는 기업철학으로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어 출하, 판매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경영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다.

S씨는 기업이 정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지역사회와의 상생, 대안적 라이프스타일과 가치의 추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2010년대 후반의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 이주민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기업가-되기’의 양가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의 회사는 연대와 공존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이익추구와 자본축적이라는 기업의 일차적 목표를 넘어, 지역과의 상생 및 대안

적 공동체적 네트워크의 모색까지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회사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활동을 예로 들면, 외국의 영세농들에게서 원재료를 보통 가격보다 약 3배 비싼 가격에 사 오고, 제주 지역 농부들에게서도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농산품을 구매한다. 또한 지역의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여러 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기부한다. 이러한 예는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추구와 경제 주체간의 무한 경쟁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Harvey 2005)의 해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정기제 중의 하나가, 특정한 정치철학이나 이념에 기반한 외부로부터의 비판이 아닌 (가령,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기업활동 자체에서 나올 수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근데 (원재료를 수입하는) OOO라는 땅이 콘텐츠는 많지만 굉장히 경제 구조가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이쪽 동네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마을에 청년들이 없고, 대신 제주의 순수, 제주다움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콘텐츠를 여기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고 청년들을 모으고 재미난 마을을 만들어서 여기서 부를 창출해서, 그 부가 다시 OOO로 들어가고 하는. 나는 그럼 이 식품이라는 걸 가지고 OOO와 제주를 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연구자: 한 쪽에 좀 많이 남는 거를 없는 데다가 옮기고, 다시 이익을 그쪽으로 가져가고?) 네 그런 재미죠.

[...] 하지만 저희는 또 벤처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에요. 우리가 ngo 단체면 ngo만 하겠지만,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기업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이익만 창출해내는 기업이라면 ngo적인 마인드도 필요 없죠. 하지만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잡는, 사회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 사실 엄청 힘들어요. 지금 우리 매출추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진짜 성공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사장님들 모임 나가 보면 (우리 얘기 듣고) 누군가 한 사람은 멍 때린 표정을 짓고 있어요. [...] 그래서 우리는 OO에 대한 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OO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 회사를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제주형 라이프스타일 이주민의 두 가지 사례는 그들의 대안적 삶의 비전이 본질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 있음을 보여준다. 거칠게 비교하자면, 2010년대 초반 문화이주민의 원형이 히피이자 예술가라면, 2010년대 후반 제주형 라이프스타일 이주민의 원형은 기업가라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최소한의 사업적 또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추지 않으면,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주에 거주하고 생활해 나

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4부에서는 제주 읍면 지역의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교류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V. 제주이주와 지역사회의 변화

2010년대 제주이주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제주가 청년들을 포함해 외지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거주지로 탈바꿈된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주의 몇몇 마을을 중심으로 급속한 이주민 유입, 부동산 가격 상승, 관광화 및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전통적인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관광공간이 중첩되고, 개발 이익의 수혜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이원화되는 등, 급속한 개발이 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린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개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더 근원적으로는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 그것이 제주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보고서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므로 그 질문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다.

2010년대 약 10년간의 제주이주는 2020년대의 이주흐름 및 현재의 제주사회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3부에서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제주이주와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 담론의 결합을 들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공장이나 대기업이 적은 제주에서, 대도시에서 즐겁지 않은 직장생활에 시달린 이주민들은, 정착 후 거의 대부분이 급여생활자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했다. 2010년대 후반에는 기업가적 혁신역량을 갖춘 ‘로컬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이주민 모델로 제시되면서,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닌, 혁신과 창조성을 갖춘 ‘기업가’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2010년대 초반에 문화이주 담론이 제주이주를 정의했다면, 2010년대 후반에는 기업가적 혁신 또는 라이프스타일 담론이 제주이주를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가적 개인들’로 재정의된 이주민들의 유입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며, 추후 제주에서 몇십년간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업가적 이주민들이 인식하는 “로컬”과 제주인들이 인식해온 마을의 차이를 살펴보고, 제주 남서부 지역의 해안마을 P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인식 차이가,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1. 마을과 “로컬”의 차이

1-1. 마을공동체 : 공동의 규율과 제재의 가능성

전통적으로 제주 마을은 경제, 종교, 친족, 자연공동체로서 제주인들은 여러 겹으로 얹히고 설킨 관계들 속에서 공동의 삶을 영위해 왔다. 즉, 같은 마을공간에 거주하고, 반농반어에 종사하며, 본향당에서 동일한 당신을 마을수호신으로 위하고, 여러 겹의 혼인 또는 친족 관계 속에서 끈끈한 공동체적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지금까지 제주 마을공동체는 여러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인 접근이 당신앙에 초점을 맞춘 신앙공동체로서 마을을 다루거나(강정식 2002, 여연, 문무병 2017),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 관심사를 초월한 공동적인 것, 즉 최근 점진적으로 매각되거나 사유화되고 있는 마을의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연구하는 것이다(최현, 김자경, 윤여일 2021).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주 마을 연구 경향과 달리, ‘공동 규율의 존재’와 ‘그 규율을 어긴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제주 마을공동체를 정의하고자 한다. 제주의 전통 마을에는 성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생업과 인간관계, 기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여겨지는 관습적 규율이 존재했고, 그 규율을 어긴 개인들을 직간접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었다. 이 제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궂당”이라 불리는 제주의 광범위한 친족 네트워크였다.

1970년대 이후 국가 권력과 행정력이 제주의 마을과 그 내부 자치조직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공식적, 성문화된 권력과 궂당의 관습적, 비공식적 영향이 상호 충돌하고 경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나 2016년 해군기지가 완공된 강정마을처럼, 국가가 그 공권력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여 마을공동체를 두 파로 갈라놓은 극소수의 사례 외에는, 여전히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주의 전통적 사회조직과 친족 네트워크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마을이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사회적인 것’은 개인을 넘어서 있으며, 사회란 개인에게 늘 어느 정도와 속박과 제재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는 에밀 뒤르캤의 사회학적 관점에 근거하여(Durkheim 1967), 전통적인 제주 마을공동체를 다음처럼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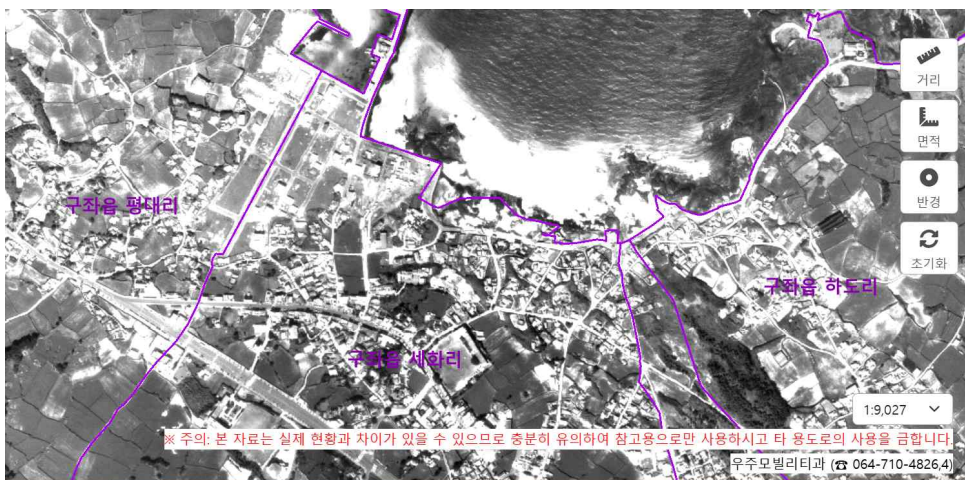
공동의 생업, 거주지, 종교적 대상을 가지며, 내부의 친족조직(궂당)과 당신앙이 개인들의

삶의 핵심적 규율과 제재 원리로 기능했던 집단

이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의 규율을 위반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다. 이 관점에서 보면, 2010년대 제주이주민의 유입과 마을사회의 변화, 더 나아가 제주 전역에서 관찰되는 제주인-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긴장의 핵심에는 “제재가 불가능한 이방인”이라는 문제가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 행정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이장이나 통장과의 면담, 인사, 서명을 통한 직접 대면식 전입신고제가 폐지되면서, 정착주민들은 마을회나 마을이장과 협의 없이 동사무사나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바로 제주 마을로 이주가 가능해졌다. 마을회와 일면식도 없고, 마을 공동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마을 발전기금이나 운영기금 납부에도 소극적인, 다시 말해 마을을 공동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개인들이 같은 거주공간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마을민, 또는 이주민-제주인 사이의 긴장이 단순히 비대면 전입신고의 일반화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많은 이주민들의 네트워크와 생활반경이 특정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의 경계를 가로질러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를 다룬 논문에서 부혜진은 제주의 촌락공동체와, 이주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차이를 다음처럼 비교한다 (부혜진 2015: 236-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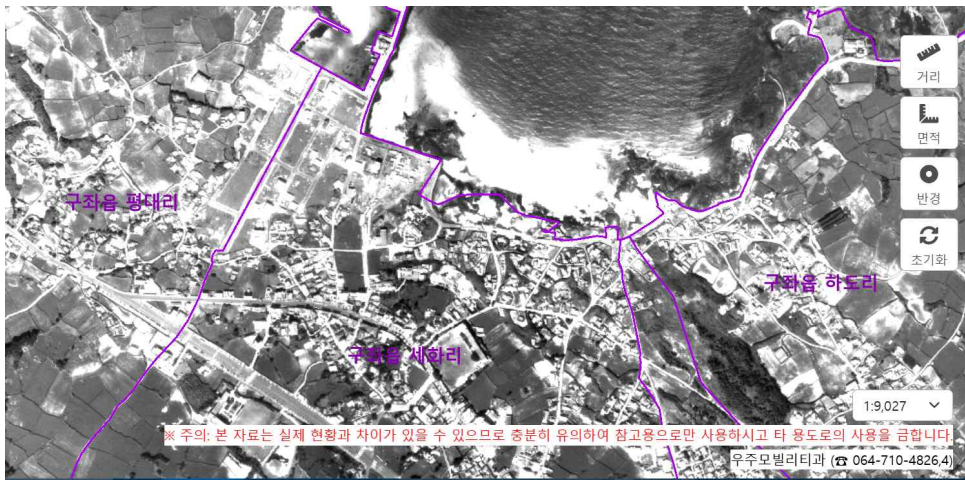
제주도 촌락지역의 지역조직으로는 촌락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연령 및 성별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계층조직과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되는 기능조직이 있다(夫, 2010). 마을을 단위로 결성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들의 거주지가 마을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은 복수의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夫, 2010; 부혜진, 2011). 촌락지역은, 구성원들이 사회적 행동에 관한 공통적 가치와 규범을 가지기(石原 潤 등 편역, 1986) 때문에 안정적, 통합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촌락성(ruralism)(Halfacree, 1993)을 갖는다. 그리고 촌락지역의 자원은 일(work)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일이 가족조직의 형태와 사회관계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石原 潤 등 편역, 1986). 남원1리의 지역조직의 형태와 성격은 촌락사회가 갖는 촌락성(ruralism)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협동조합은 다른 지역조직들과 마찬가지로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지만 성격 면에서는 기존의 지역조직과 대조적이다. 먼저, 구성원들의 거주지가 조직이 입지해 있는 남원1리를 벗어난다는 점은 물론 구성원들의 직업 또한 다양하다. 때문에 협동조합의 모임 이외의 활동영역 또는 생활 전반에 걸친 구성원들 간의 빈번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각자의 직장과 거주지나 조합활동, 종교활동, 정당활동, 취미활동을 통하여 남원읍내의 토착주민, 서귀포시의 도시주민 등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경험한다. 이러한 성격은 오히려 도시지역의 도시 주민들이 직장, 집, 여가 등을 통해 다양한 접촉을 갖는 도시성(urbanism)(Halfacree, 1993)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활동 면에서도 생산활동과 그에 필요한 공동작업은 기존 촌락지역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기존의 지역조직에서의 경제 및 생산활동은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농업 또는 어업과 같은 공통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반해, 협동조합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과는 상관없이 농축산물 판매라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 지역의 영농조합과의 협력체계는 필연적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추진체제는 도시지역의 도시주민, 도시조직이 갖는 유기적 연대나 합리성과 같은 도시성(Halfacree, 1993)에 가깝다.

다음 페이지는 구좌읍 평대리, 세화리, 하도리 세 마을의 경계를 각각 1995년, 2018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이다. 상대적으로 1995년에는 세 마을의 구역이 비교적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2018년으로 오면 세화리 중심가를 기준으로 정착 인구가 늘어나, 각 마을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특히 2018년의 경우, 평대리와 세화리의 경계에 거주인구와 주택들이 늘어나, 두 마을의 경계가 임의적인 행정적 경계처럼 보인다. 당신양과 부락내촌에 기초한 전통적 의미의 제주 마을공동체는 2010년대, 이주인구 유입으로 지리적 관점에서도 자명한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제주의 행정리 단위의 마을회는 여전히 개별 마을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조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회의 입장에서는 이주민들을 개별 마을의 공동체적 권위 또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와 규율에도 소홀하면서, 마을에의 성원권과 권리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개인들로 바라볼 여지도 생겼다. 또한 이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의 삶에 지쳐 느리고 자기다운 삶을 위해 이주한

제주 농촌 지역에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발전기금 납부나 마을활동에 참여를 권유받는 일이 거북한 간섭이자 속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를 이주민들의 공간 인식, 특히 최근 뚜렷한 정의 없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로컬” 개념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7〉 1995년(위) 및 2018년(아래) 기준 구좌읍 평대리, 세화리, 하도리의 마을 경계
(출처: 제주 공간포털, <https://gis.jeju.go.kr/>)



1-2 “로컬” : ‘기업가적 개인들’을 위한 로컬

오늘날 제주를 여행하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제주 공항 근처에서 렌트카를 빌린 다음 동쪽이나 서쪽 일주도로를 따라, 또는 한라산을 향한 중산간 도로를 향해 움직인다. 제주시를 벗어나면 얼마 안 가 푸른 바다나 둥근 오름, 싱그러움 숲길이 관광객을 맞는다. 계속 달리다 보면 지붕 낮은 제주의 집들과 상가가 밀집된 마을 중심지나 읍내를 마주하는데, 다시 그곳을 벗어나면 모던한 카페나 호텔 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해변이나 들판, 숲길로 들어선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제주 여행은, 대부분 이렇게 소규모 거주공간과 탁 트인 자연을 번갈아 횡단하는 여행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제주 읍면 지역의 특징 하나는 그곳이 시골인지 도시인지, 마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행정단위인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제주의 거의 모든 마을 앞으로는 포장도로가 깔려 있고, 제주도민들이 살고 있는 지붕 낮은 집과 돌담길, 굴밭과 당근밭 바로 건너편에는 버스 정류장, 신호등, 주유소, 편의점, 카페, 숙박 업소가 혼재해 있다.

행정적으로는 농촌 지역(읍, 면, 리)에 와 있지만 제주의 시골은 고립된 농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완전히 시골도, 완전히 도시도 아닌, 두 지역이 매우 쾌적하게 어우러진 혼합된 공간에 와 있다는 느낌을 준다. 많은 제주 이주민들은 제주의 매력으로 이 점을 꼽는다.

제주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농 복합이라고 하면, 육지에 도농 복합이라고 하면 어디 도시가 있고 멀리 떨어지면 시골 농촌이 있고, 다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서울은 서울 근교는 다 그냥 도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는 특이한 게 가다가 도시 같은데 좀 지나면 다시 농촌이고 농촌이었는데 다시 도시고 도시였는데 농촌이고... 그 만족감이 온전히 시골에 사는 느낌은 또 아닌 거예요. 완전 시골에 살아서 내가 전남 어디에 가서 산다 하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주하지 않았거나 살았어도 금방 떠났을 거다. [...] 제주는 한 걸음 나가면은 바다고 한 걸음 나가면 산이고 한 걸음 나가면 농촌이고. 또 한 걸음 옆으로 바로 지나가면 갑자기 도시가 펼쳐지고 뭔가 인프라가 있고. 도시라는 게 대단한 도시는 아니더라도 [...] 계속 그냥 번갈아 가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도시에 사는 건지 농촌에 사는 건지 어떻게 보면 농촌에 살면서 도시의 편리도 느끼고 감상적인 어떤 분위기도 느끼고 막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종합선물세트처럼 느껴지는 방식이 있는 거죠.

(제주시 거주 40대 이주민, 협동조합 대표)

전북 무주 거기에 귀농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제주로 온 사람이 있는데 왜냐 물었더니, 자기가 전북 무주의 일단 시골에 가가지고 귀촌을 한 거예요. 했는데 영화 한 번 보러 가려고 2시간 동안 간 거예요. 내가 서울을 벗어나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 활동을 기존의 농촌 시스템으로 하고 싶은 건 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는 이제 그런 것도 되면서, 이제 단점도 극복이 조금이라도 돼.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제주시 거주 50대 이주민, 제주시 공공기관 근무)

예를 들어, 평창, 수려하고 좋잖아? 근데 평창이 제주하고 (상대가) 왜 안 되냐면, 거기는 인구에서 안 되지만은 개발하는 데가 몇 개 되지 않잖아? 인구 자체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시골이 없잖아 제주는 시골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군끼리 통폐합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군이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기를 쓴다고 막 출산 장려금 주고. 저기 주민등록만 글로 옮겨서 내가 귀농한다고 그러면은 막 3년 땅을 그냥 공짜로 줘 3년 동안. [...] 여기는 제주는 그런 거 일절 없어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정책자금 지원해주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제주도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젊은 애들이 몰려오고 뭐 나이 먹은 사람도 몰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서귀포시 거주 70대 은퇴이주민)

이주민들이 안 왔으면 제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도 같았을 겁니다.

(50대 제주도민, 남원읍 거주)

기억할 점은 이주민들이 제주 농촌경관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제주 농촌 공간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당 부분 방치된 공간이었다 (Jordan 2019: 32-36). 제주 시골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재발견 또는 발명해서 관광객과 외지인을 유인한 것은 이주민들이었다. 지역민들과는 다른 미적 감각을 가진 이주민들이 이 매력적인 시골성을 탄생시킨 것이다.

위에서 몇 가지만 사례만 소개했지만, 많은 이주민들은 제주가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종합선물세트” 같거나 “제주는 시골이 없다고”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귀촌이주에서 “촌”의 개념을 재질문하게 만드는데,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재창조하는 농촌은 전통적 농업공간으로서의 농촌만은 아니다.

남해 청년이주민에 관한 임하결(2022)의 논문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엄격한 이분법이 이들의 이주를 설명하는데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 그가 연구한 청년이주민들은 도시

출신으로 한반도 최남단의 남해 지역에 정착했는데, 정작 남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지만, 도시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는 이 청년들은 결국 몇 년 정도의 남해 생활 이후 “도시와 시골의 중재자”가 된다. 즉, 도시인들과 관광객에게 그들이 처음 남해에 올 때 지니고 있었던 시골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사람들이 된다. (임하결 2022: 133).

아시아의 도시와 시골성에 대한 지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의 도시 공간은 여러 면에서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다. 지리학자 앙리 데부아와 프랑수아 미셸 르 투르노는 “도교와 시골: 토리데 교외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아시아 도시의 독특한 특징을 “인구와 활동 측면에서 반은 시골이고 반은 도시인 지역”이 혼재한다는 점을 꼽는다 (데부아와 르 투르노, 1999, 28쪽).

또한 지리학자 테리 G. 맥기와 왕 야오린은 “아시아의 거대도시 형성”이라는 논문에서 아시아의 대도시들이 “도시와 농촌 환경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혼합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맥기 및 왕, 1992, 2쪽). 다시 말해, 아시아의 도시는 반은 도시이며, 반은 농촌인 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이라는 고전적 구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을 연구하는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도 이러한 패턴에서 예외는 아니다.

발레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권은 고트만이 분석한 미국식 도시권이 아니라, 데사코타(인도네시아어로 마을(desa)과 도시(kota)의 합성어)라는 아시아 도시 특유의 혼합적 패턴을 보인다. 한국의 도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녀는 한국의 도시성을 이해할 때 농촌/도시 사이의 형태학적(morphological) 구분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기준, 무엇보다 거주민들의 이동패턴과 생업이 농촌/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Gélézau 2011: 66).

그녀의 분석을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주의 “로컬”이 그 본질상 확장된 도시공간으로서, 농어업 등의 전통적 생업이 아닌, 기업가적 개인들을 위한 장소라고 주장하려 한다. 다시 말해 로컬은 도시화된 지방, (농산품의) 생산이라는 전통적인 농촌공간의 기능이 아닌, 기업가적 개인들과 도시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골성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이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로컬”이 도시성과 시골성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그 본질상 확장된 도시공간의 성격을 갖는다면, 앞 절에서 설명한 2010년대 후반의 제주이주 지형 속에서, “로컬”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는 그 본질상 혁신과 창조성을 지닌 기업가적 개인들, 즉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정의되기 시작했다.

2025년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을 예고한⁸⁾ “제주특별자치도 로컬코

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다음처럼 정의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적 지역공동체 조성 및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적 가치 등을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례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DAUM이라는 기업의 유산을 이어받은 몇몇 준공공기관 차원에서 추진하던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 제주정부 차원의 정책적 아젠다로 편입되었고,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적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기업가적 개인들을, 인구학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제주분 아니라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역재생과 경제활성화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 본질상 기업가이며, 기업가적 개인들로서, 지역상생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줄 아는 이들이다. 다음 장에서는 제주 남서부의 한 해안마을 사례를 통해 기업가적 이주민들이 전부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니며, 기업가적 개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2. P 마을 사례: 이주민과 마을회의 상충하는 입장들

제주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P 마을은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마을 중 하나로, 지난 10여년간 이주민 정착이 매우 활발했고, 제주 북동부의 월정리와 함께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이루어진 마을 중의 하나다. 마을 남서쪽에는 웅장한 절벽과 아름다운 만(灣)이, 남동쪽에는 화산암 해변이, 북쪽으로는 계곡과 오름이 위치한 뛰어난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예고, <https://www.council.jeju.kr/notice/law.do?act=view&seq=370457>

경관의 마을로, 지난 10여년간 고급별장과 펜션 등이 속속 들어서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기도 하다. 2022년 기준, P 마을 총 인구 중 이주민 비율은 약 56%였다.

P 마을은 3부에서 살펴본 제주이주의 경향변화가 뚜렷이 관찰되는 지역으로, 2010년대 초반에는 몇몇 게스트하우스, 카페를 중심으로 히피적 성향의 ‘문화이주민’들이 체류한 곳이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1세대 이주민들은 마을을 떠나고, 본격적으로 개인 자영업 또는 “비즈니스”를 꿈꾸는 이주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소규모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 단위의 30-40대 이주민들뿐 아니라, 고급별장을 지어 이주한 은퇴이주민, 그리고 육지에 거주하지만 대형자본을 투입해 대형 카페나 호텔을 지어 상업활동을 하는 외지인들도 유입되게 된다.

연구자는 P 마을에서 2021-2022년, 2025년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된 마을환경에 대한 마을민들의 관점은 양가적이었다. 상점과 카페,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서 빠르게 변한 마을의 분위기를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및 자산가치가 증가하고, 관광수입이 늘어나 마을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반기는 주민들도 있었다.

P 마을회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난립한 개발사업과 주말이면 반복되는 주차난,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상업시설 운영주들과의 대화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자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공고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P 마을회와 이주민들의 공존의 양상을 살펴보고, 양측의 입장 차이와 그 이유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1 마을회의 이주민 인식 : “비즈니스하려고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2021년 12월, P 마을회관에서 마을총회가 개최되었다. 저녁 7시경, 20명의 마을위원을 포함, 총 30여명의 마을회 대표들이 모여 한 해의 마을활동을 결산하고, 공동의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당시 다뤄진 의제는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주말과 성수기면 반복되는 주차난 문제였다. P 마을은 제주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일주도로에서 차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일주도로에서 계곡을 넘어 마을로 진입해야

한다. 교통 면에서는 불편하지만 언덕을 넘어오면 탁 트인 평지와 만이 펼쳐져, 매우 아늑하게 감싸인 느낌을 주는 곳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0년대 후반, 마을 남쪽의 해변가에 세 군데의 대형카페와 호텔이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일주도로에서 마을 남쪽 카페와 숙소로의 접근로가 1개 뿐인 상황에서, 주말과 성수기면 렌트카를 타고 관광객들이 쇠도했고, 마을 거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마당에 차를 대야 하거나, 후진하던 렌트카들이 돌담을 무너뜨리고 도주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하는 상황이었다.

마을회에서는 대형카페 운영주 측에 개별 주차장을 증축할 것을 요구했고, 동시에 마을 입구에 부지를 마련해 공용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도보 마을”을 만들어 모든 관광객들이 걷는 마을을 조성하려는 꿈이 있었지만, 2025년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P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주민들로 40대 이하 청년 비율은 매우 낮으며, 마을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이주민이나 제주인 가구도 채 다섯 가구가 되지 않았다. 초등학교가 있었으나 10여년 전 폐교된 후에는 P 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전부 인근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회와 주민들은 무엇보다 이주민들을 “비즈니스하려고 잠시 왔다가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쫓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반면, 이주민들은 언제든 잠깐 머물렀다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이주민 체류의 결과를 마을에 ‘남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그 양반(마을에 카페를 차렸던 한 예술가)도 장사했잖아요. 돈 벌고 카페 팔아서 벌고 갔잖아요. 다 그런 시스템이지.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농촌에 와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왔어. 그럼 이게 농촌에 다시 환원이 돼야 되는데 네 농촌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만들어놓고 자기 이름을 만들어내요 그걸로 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뭘 연예인이랍시고 와서 뭘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치고 간 곳은 인터넷 SNS로 홍보되면 그곳으로 방문한다고. 그럼 그 장소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끝이에요. 결국은 그거에 따르는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 마을이 주민들이 갖고 가요

(P 마을 이장, 60대)

옛날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막장들이 (제주로) 많이 왔다.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준비된 사람들/자본있고 권력과 소통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을 이장과 협의 없이 도로 뚫고 오수관 만들고 도지사랑 협의해서 개발한다. “굴러온 돌이 더 세다” 지금도 OO 출신들 타운하우스 짓고 석연찮은 건축허가 받은거 보라. 저기 대형카페도 마찬가지다. 사장이 OO이다. 물론 마을 협조는 잘 하지만. 문제는 마을회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거다. 입주여부도 마을 이장이 모른다. 법 개정 때문에. 문제 터져야 아는거다 마을에서“

(P 마을 50대 주민)

옛날 전라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기친 거부터 해서. (제주인들은) 사기를 많이 당하고 저희는 많이 배려해 주는 반면에 그걸 이용해 먹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육지 사람은. 어떤 생각이나 하면 육지 사람들은 여기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팔아서 간다. 저희 생각은 딱 그 생각이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리를 좀 두는 거고. [...] 마을 이주민들도 그래서 마을 행사 비, 리운영비를 일체 안 내요. 그래서 (이주민들) 우리가 반감지가 않아요 솔직히.

(P 마을 청년회장, 50대)

나 때만 해도 마을에 들어오려면 마을 이장한테 도장을 맡아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연구자: 어떻게요?). 마을에 들어오면은 이장님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이름을 대고 뭐하러 내려왔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도시화가 돼버리면서 지들 마음대로 집 짓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하면서 법대로만 해버리면, 이제 누구의 터치도 없이 그냥 법대로만 하면 (마을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개발된 데가 (마을에), 저기 저 양반 (카페 소유주)도 약간 백이 있는 양반이라 거기도 이제 (법대로만) 밀어붙이는 거지. 그런데 솔직히 자연 풍광을 보는 건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려고 하면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야지만 볼 수 있는. 그래갖고 그 앞에 차 세워 놓고 그러면 자기네 주차장이라 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거기 자기네 땅도 아니에요.

(P 마을 이주민, 50대)

거기 카페 OO는 (마을회랑) 안 친해 안 친해요. 예전에 마을행사할 때 좀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리운영비를 왜 우리가 내냐고. 여기 살면 행사하며는 리운영비 내라 그러거든?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비야. 그러니까 능력껏 내라 했더니 왜 우리가 내야 되는데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식이야 사람들이.

(P 마을 사무장, 50대 남성)

이러한 시각은 비단 마을민만이 아니라,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마을에 정착한 은퇴이주민도 공유하는 것이었다.

(여기 젊은 이주민들은) 있어봤자 조그맣게 장사해서 지 장사할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지. 여기 사랑하고 오는 애들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꾸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 손님 몇 명 오는 것만 생각하지. 조그맣게 집 하나 임대 얻어서 게스트하우스 하고. 이런 애들이 뭘 생각을 해. 언제든 떠날 사람들인데. 개네들은 언제든 떠날 애들이야.

우리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개네들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사 되면 갈 애들이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 와 있는 것 뿐이지. 여기를 발전시킬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P 마을 70대 은퇴이주민)

P 마을의 경우, 마을민과 이주민의 관계는 겉으로 크게 불거진 갈등이나 다툼은 없었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 때문에 표현되지 않은 긴장이 가득했다. 2025년 10월에 만난 P 마을 이주민(호텔 운영, 50대)은 “이젠 다들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 같다. 친해졌다기보다는 지친 것 같다. 다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주민(40대)은 “지난 10년간 서로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어지간해선 잘 안 부딪친다. 나만 해도 그렇다. 2010년 초반에는 서로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히고 했는데 이젠 어우러져 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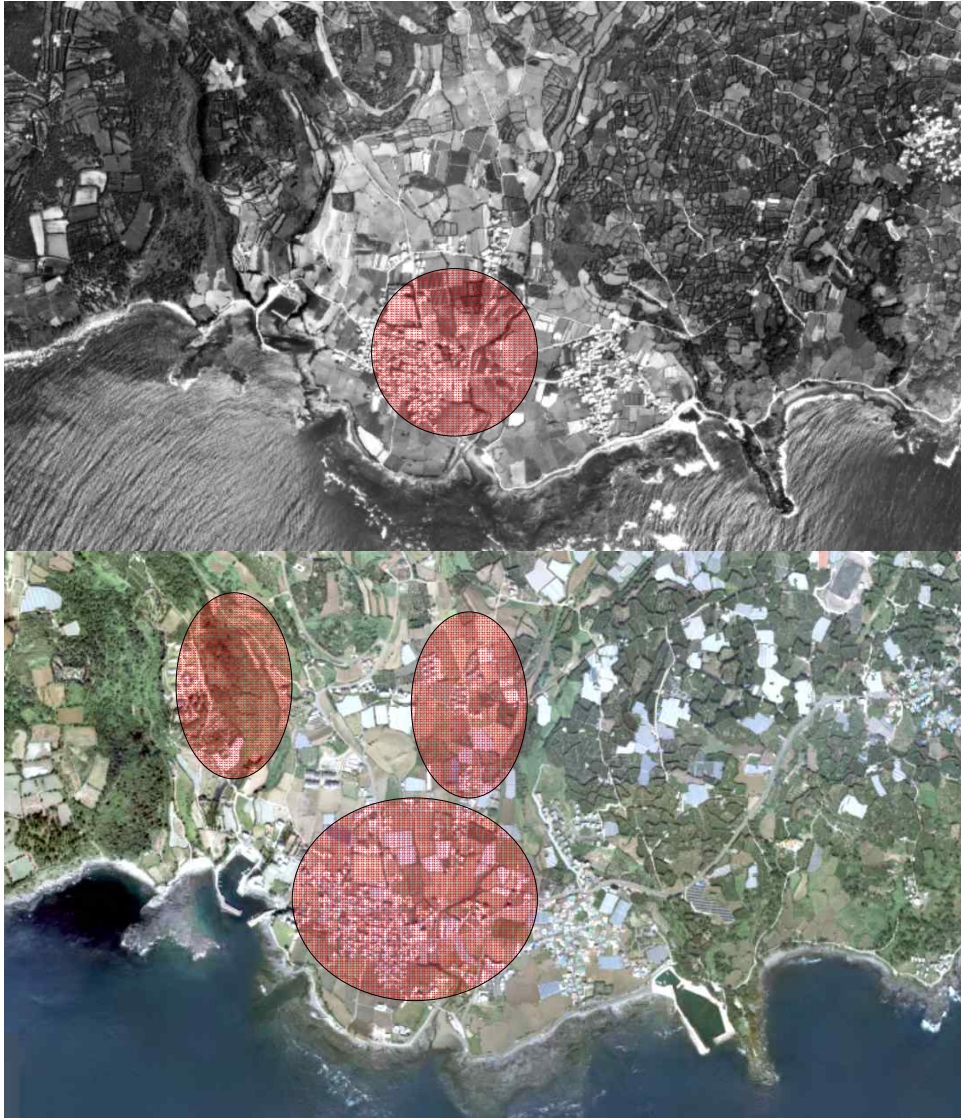
지난 10여년간 크게 변한 P 마을에서는 이주민이 주도해 설립한 농업 협동조합이나, 이주민-마을민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 3부에서 소개한 S 기업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와 의미있는 교류를 이어가며 상생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 P 마을의 경우, 급속한 개발과 관광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탓인지, 이주민과 마을민의 관계는 비교적 경직되어 있다.

각각 1995년, 2018년에 촬영된 P 마을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0년대 이주민 유입 이후 P 마을의 거주지역이 확장되고, 마을 북서쪽에 은퇴자를 위한 고급 펜션이 지어지며, 마을 남쪽 해변에 대형 카페와 호텔이 들어선 것을 볼 수 있다. 마을회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빠르게 진행되어온 개발의 속도를 늦추기를 원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로서 마을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시나도 차원에서 개발허가를 받아 마을로 진출하는 사업가 또는 자본가들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2010년경 무렵, 마을의 한 대형건물이 상업 용도로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당시의 P 마을회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마을회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의 개발계획에 반대의사를 표현했지만, 마을회가 막을 수 없는 개발허가가 여러 차례 승인되었다.

옛날에 마을에서 건축물 고도제한을 하려 했다. 단층으로만 하길 원했는데 개인재산권 행사이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법으로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규칙을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안건은 마을총회서도 여러번 나왔는데 어쩔수가 없었다. 제주시나 도에서 만든 법률이 있겠지만 마을 내에서도 이장 권한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나 도와 협의해서 그런게 되었으면 한다. 지금 빌라 등 대단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마을에 물도 부족하다. 나중엔 집집마다 물 저장고 설치해야 할 판이다. 특히 마을입구에 빌라 3채 지은 게 컸다. 그게 마을 풍경을 망치는데 큰 역할 했다.

(K 마을 이주민, 식당 운영, 50대 여성)



〈그림 8〉 1995년(위) 및 2018년(아래) 기준 P 마을의 공간 변화 (출처: 제주 공간포털, <https://gis.jeju.go.kr/>) 지난 10여년간의 이주민 유입으로 P 마을의 거주공간은 확대되었고, 약 30여개가 넘는 카페, 호텔, 식당 등이 들어섰다.

2-2 이주민의 입장 : 마을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 불가

P 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노후를 위해 정착한 은퇴이주민으로 마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카페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30-40대 이주민들로 대부분 부부 단위로 이주했고, 마을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세 번째 집단은 실제 마을로 전입은 되어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마을에서 거주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아마도 외부에 거주하다 잠깐씩 마을을 방문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별장들의 소유주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이주민들은 대체로 대도시의 직장 생활에서 시달리고 지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거북한 관계들에서 해방된 휴가분함과 여유를 누리고 싶어했다. 따라서 일체의 조직이나 공동체 활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이나 다른 이주민들과도 교류도 미비한 편이었다. 물론 이주민과 마을주민의 관계가 냉랭했던 것만은 아니다. 가령 마을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돌담길 복원사업에는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전부 참여했고, 또 몇몇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지역밴드와 개별 친목모임도 있었다. 마을활동에 적극적인 이주민들도 있어서 그 중 일부는 마을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을일에 적극적인 이주민들조차도 마을회 운영이 토박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모임이 마을회 안으로 흡수된 이후, 그 동력이 상실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처음에 장사하는 이주민들이 모여서 조직을 하나 만든게 있어요. 번영회라고. 그런데 이게 변질된 거라. 보니까 뭐 어느 샌가 그냥 마을 자치단체의 형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번영회에서) 크게 힘을 못 쓰게 돼 그렇잖아요. 이게 별도로 구성돼 있어야 마을하고도 뭔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을 자치단체 그냥 자생단체 하나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마을에서 뭐 오라면 가야 되고. 마을하고 협의할 거 협의하고 협조할 거 협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마을 이장님 시키면 해야 하는 상태가 돼 버렸으니 별 의미가 없죠.

(K 마을 이주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50대)

마을회는 외부인이 한번 가보면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나는 이주민 10년차여서 적당히 물어가고 참고 넘기는 거다.

(K 마을 이주민, 카페 운영자, 40대)

나도 그런 데 가면은 개발위원회 가면은 이제 발언권을 주지. 그러면은 내가 소신껏 얘기를 해 나는 뭐 이런 걸 바라고 이런 게 이런 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왜 얘기를 하나 이거야. 예를 들자면 동네 일, 이제 바다 지킴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바다 지킴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OO리는 바다 청소도 안 하고 있냐. 옆 동네 OOO만 가도 청소 엄청나게 잘해.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뭘 알아서 그런 거 주제 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 외지인들이 딱 소신껏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를 수용을 안 하니까 그냥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뒤에는 입을 닫는 거지. 그러면 (마을에서는) 그 관행대로 해왔던 대로 약간 타성에 젖어서 계속 똑같이 하고.

(P 마을 60대 이주민. 게스트하우스 운영)

마을의 중요자리는 다 원주민이다. 여기 마을축제 같은 것도. 이주민들은 그걸 사업으로 키우고 활성화시키길 원하는데, 원주민들은 별 관심없다. 이주민들은 회비 걷어서 사업 키우자, OO공연도 내가 그랬어. 원주민들 나와서 호응해 줘야 하지 않냐? 바쁜건 인정하지만 유럽의 지역축제 보면 모두 나오잖아. 나와서 다 즐기잖아?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축제에 움츠러들어 있어. [...] 여긴 축제해도 많이 흥이 안 나는 거야.

(P 마을 70대 은퇴이주민)

2020년 이후 P 마을에서는 카페와 호텔, 식당의 대형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단위 이주민이 정착해 운영하는 소형 가게가 아니라, 대형자본이 유입되어 지어진 대형 카페와 숙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 단위, 또는 부부단위로 이주한 30-40대 이주민들은 한편으로는 마을회,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화되고 있는 새로운 경쟁업체 사이에서 이중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을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또한 이주민들끼리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자치조직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다. 이주민들 간의 활성화된 공동체 - 그것이 협동조합이든, 계 조직이든, 기타의 형태로든 - 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마을회와는 거리를 둔 채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어쩌면 이주민들의 의사를 집합적으로 담아낼 수 없는 공동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P 마을의 이주민들이 개인사업에만 골몰하지 않았냐, 하는 점이다. “비즈니스하려고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에도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 “비즈니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으로 이주민들이 내몰리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의식은 P마을 뿐 아니라, 제주 전역의 많은 이주민들에게도 해

당되는 질문이다.

‘문화이주’에서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 이주’로의 변화라는 2010년대 제주이주의 변화경향 속에서 P 마을의 상황을 재해석해 보면, 여유로운 은퇴이주민이 아닌 이상, 평범한 30-40대 이주민들에게는 ‘제주에서의 느리고 여유로운 삶’이라는 꿈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힘들고, 경제적인 영역을 무시한 사회적, 공동체적 실험들의 경우, 2010년대 초반의 문화이주 시기에만 가능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0년 후반의 제주 현실에서 이주민들은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잘 해야 한다. 기업가적 창조성과 네트워킹 능력을 동시에 지닌 몇몇 뛰어난 기업가적 이주민들의 성공사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탁월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등장 이후로, 기업가적 주체성 또는 라이프스타일이 개인들의 새로운 생활모델이 되었다. 그 라이프스타일은 역설적으로, 2010년대 초반 문화이주민들이 서울에서 도망치고 싶어했던 그 치열함 속으로 이주민들을 다시 데려가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이 연구는 2010년대 제주이주의 경향이 ‘문화이주’에서 제주형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변모했음을 보이고 파악하고, DAUM의 제주이전 이후 확산되고 있는 스타트업 문화와 기업가적 혁신 담론을 통해, 2010년대 후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기업가적 개인들이 이주민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10월, 제주도의회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 육성하겠다는 조례입법을 예고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규명한 2010년대 후반의 이주경향이 제주정부의 정책으로 편입된 이상, 본론에서 다룬 주제들은 향후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제주이주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제주가 청년들을 포함해 외지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거주지로 탈바꿈된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주의 몇몇 마을을 중심으로 급속한 이주민 유입, 부동산 가격 상승, 관광화 및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전통적인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관광공간이 중첩되고, 개발 이익의 수혜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이원화되는 등, 급속한 개발이 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린 측면도 있다. 제주도의 ‘개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동시에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 2010년대 제주이주가 제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온당히 평가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기존 연구들에서 강조되지 않은 이 연구의 초점 하나는 2010년대 후반에 가시화된 제주이주와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 담론의 결합이다.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공장이나 대기업이 적은 제주에서, 대도시에서 즐겁지 않은 직장생활에 시달린 이주민들은, 정착 후 거의 대부분이 급여생활자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했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에는 기업가적 혁신역량을 갖춘 ‘로컬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이주민 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2010년대 초반에 문화이주 담론이 제주이주를 정의했다면, 2010년대 후반에는 기업가적 혁신 또는 라이프스타일 담론이 제주이주를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적 창조성과 네트워킹 능력을 동시에 지닌 몇몇 뛰어난 기업가적 이주민들의 성공사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탁월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등장 이후로, 기업가적 주체성 또는 라이프스타일이 개인들의 새로운 생활모델이 되었다. 그 라이프스타일은 역설적으로, 2010년대 초반 문화이주민들이 서울에서 도망치고 싶어했던 그 치열함 속으로 이주민들을 다시 데려가고 있다.

2. 시사점

이 연구는 2010년대 후반 제주이주의 흐름이 기업가적 라이프스타일 담론과 접합되고 있고, 동시에 제주뿐 아니라 한국 전역에서 활발하게 논의, 실험되고 있는 “로컬 라이프”가 그 원리상 기업가적 개인들의 창조적, 공동체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이주민들이 제주에 정착하기 전에 체화한 생활양식과 삶의 태도 - 그것을 도시적이라 하건, 개인주의적, 기업가적이라 부르건 간에 - 와 제주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양식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자 했다.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와 그 현재적 지점을 살펴보려 한 이 연구가, 향후 제주도의 이주민 및 지역발전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시나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청년이주민, 은퇴이주민 등 모든 종류의 이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이주민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4년 이래 제주도에서도 정착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대개 지역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지역단체나 마을지도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개별 마을이나 지역을 넘어서서,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10만이 넘는 이주민의 지원, 관리, 요구와 쟁점의 수렴 등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2025년 10월, 제주도의회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육성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제주에 존재하는 풍부한 유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사업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제주의 정책적, 경제적,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와 같은 혁신적 기업가의 활동은 항상

상품화와 상품 수익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기존에 상품교환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대상들을 상품교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갖는다. 따라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안과 병행하여, 제주도민들의 기본적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자산이나 부동산의 경우, 즉각적 거래나 상품화를 어렵게 하는 법안들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상품 영역에 존재하지 않았던 항목들이 시장경제의 상품교환 대상으로 편입되는 사례는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인데, 이를 지나치게 규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삶은 보장되는 한도에서 그 제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공은 기업가 개인의 탁월성에도 빚지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았지만 제주인들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공동의 자연 및 마을경관에 빚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후자를 보호해야 전자의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분별한 토목식 개발이 아니라, 제주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에 기반한 혁신적 사업모델들은 어쩌면 제주의 생태성과 문화를 온전히 보전하는 데서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문 참고문헌

- 기락, 2013, 『거침없이 제주이민』, 꿈의 지도.
- 김동현, 2017,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1): 108~118.
- 김미량·김민영, 2017, “제주 정착주민 정책 현황 연구.” 『탐라문화』 54: 179~208.
- 김민영·최현, 2015,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50: 39~78.
- 김반석, 2019, “모빌리티의 상상과 새로운 삶의 실험: 농촌 이주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2022, “2010년대 이도향촌 흐름: 인구이동과 농촌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인성 외, 2017,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연구』 47: 127~161.
- 김태형, 2011,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경환, 2017, “역도시화인가 촌락 켄트리피케이션인가?: 개념적 적합성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87~107.
- 박경환·윤희주, 2018, “촌락 켄트리피케이션의 사회·공간적 특성 - 전남 담양군 전원주택단지를 사례로 -.” 『문화역사지리』 30(1): 49~77.
- 부혜진, 2015,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26~241.
- 송수연, 2013, “새로운 문화정치의 장, 자립문화 운동.” 『문화과학』 73: 145~159.
- 심보선 외, 2013, 『제주의 문화다양성 연구: 문화예술가의 제주 이주 현황조사』. 제주문화예술재단.
- 엄은희, 2012, “변화하는 농촌성과 지역 귀농운동조직의 대응.” 『농촌사회』 22(1): 133~172.
- 염미경, 2019, “제주 이주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대응.” 『제주도연구』 51: 181~217.
- 염미경·문순덕, 2016, “산업화시대 이주자 공동체로서 향우회의 역할과 변화.” 『한국민족문화』 61: 81~119.
- 윤용택, 2020,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 『제주도연구』 53: 1~27.
- 이경은, 2019, “청년 이주민의 대안적 활동과 농촌성의 변화 - ‘A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광준, 2015, “예술가들이 제주도로 간 까닭은?” 『문화과학』 81: 173~199.
- 이화진 외, 2017,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임하결, 2022, “도시 귀촌 청년들의 관계적 공간으로서의 촌락 - 경상남도 남해군을 사례로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은희, 2017, 『제주 이주민의 역사』, 서귀포문화원.

진양명숙·김주영, 2014, “도시민 농촌 이주에 나타난 농촌성 담론 분석.” 『농촌사회』 24(2): 123~160.

진종현, 윤희주, 박경환, 2019, “전환기의 섬, - 제주도의 최근 개발 지리에 관한 小考 -.” 『문화역사지리』 31(2): 112~135.

홍근석, 김봉균, 2019,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남희, 2023, “진정성의 탐색과 문화 귀촌 - 귀촌 브이로그를 통해 본 청년의 삶-노동 에토스.” 『도시인문학연구』 15(1): 29~55.

영문 참고문헌

Desbois Henri et Le Tourneau Francois-Michel, 1999, “Tokyo et les campagnes : la progression de la banlieue à Toride”, *Mappemonde* 55, p. 28-32.

Forget, Celia. & Salazar, Noel. B, 2020, “Présentation. Modes de vie mobiles : une perspective anthropologique”, *Anthropologie et Sociétés*, 44(2): 15-40.

Foucault, Michel, 2004,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8-1979*, F. Ewald·A. Fontana·M. Senellart (éd.), Paris, Seuil/Gallimard.

Geléezeau. Valérie, 2011, *Séoul, Atlas/mégapoles*, Editions Autrement. (halshs-00629432)

Gosnell, Hannah & Jesse Abrams, J., 2011, “Amenity migration: diverse conceptualizations of drivers, socioeconomic dimensions, and emerging challenges.” *GeoJournal* 76: 303~322.

Jordan, Agnes Sohn, 2019, “Making an exit: Millennials, place-making, and exodus at South Korea’s edge.” Dissertation pape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Klein, Susanne, 2019, “Entrepreneurial selves, governmentality and lifestyle migrants in rural Japan.” *Asian Anthropology* 18(3): 1~16.

Luc Boltanski & Ève Chiapello, 1999, *Le nouvel esprit du capitalisme*, Paris, Gallimard.

McGee Terence Gary et Yao-Lin Wang, 1992, “La formation des mégapoles en Asie” , *Mappemonde*, 1992/4 (Asies), p. 2~3.

Michaela Benson & Karen O'Reilly, 2009a, “Migration and the search for a better way of life: a critical exploration of lifestyle migr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57(4): 608~625.

Michaela Benson & Karen O'Reilly, 2009b, “Lifestyle migration: escaping to the good life?” in Benson, M.·O'Reilly, K. (eds), *Lifestyle Migrations : Expectations, Aspirations and Experiences*, Ashgate, pp. 1~13.

Nathalie Luca, 2021, “Foi d’entrepreneurs”. in Patrick Michel et Jean-Philippe Heurtin

eds. *La conversion et ses convertis. Production et énonciation du changement individuel dans le monde contemporain*, LabEx Tepsis (Politika) et Centre Maurice Halbwachs, ffhal-03099632f.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업무포털, <https://gis.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https://jejumaeul.or.kr/support>

Abstract

From Cultural Migration to Lifestyle Migration: Shifting Migration Trends to Jeju in the 2010s and Transformations of the Local Community

DaeHoon Kang

Keywords : Jeju Island, Urban-to-Rural Migration, Cultural Migration, Lifestyle Migration, Entrepreneurship.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rticularities of Jeju Migration in the 2010s, to analyze its shift from ‘cultural migration’ to ‘lifestyle migration,’ and to assess its consequences for local communities. The study shows that the late-2010s trajectory of Jeju migration became entangled with an entrepreneurial lifestyle discourse, and that the notion of the ‘local creator’ fundamentally depends on the creative and communal capacities of entrepreneurial individuals.

The research also points to a significant gap between migrants’ perception of “the local” and that of Jeju villagers regarding their own community. Regarding policy-making,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protect the island’s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While the success of ‘local creators’ is certainly due to the excellence of entrepreneurial individuals, it is also indebted to the shared natural environment and villagescapes that Jeju residents have collectively produced over time. Protecting these commons is therefore essential for sustaining entrepreneurial activity. Rather than indiscriminate civil-engineering development, innovative business models rooted in Jeju’s unique attractions and values are more likely to emerge from fully preserving the island’s ecology and culture.

연구진

연구책임

강 대 훈

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제주학연구 94

문화이주에서 라이프스타일 이주로: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와 지역사회의 변화 연구

발행인 || 김 완 병

발행일 || 2025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TEL. (064)726-5623 FAX. (064)747-6140
www.jst.re.kr

인쇄처 || 선명출판복사

ISBN 979-11-994020-6-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